

리왈렐랑은니모승승차말라남정북벌하시든양원슈부인이엇지용이허항변을셋즈  
 리오하고일변소리하며일변행마하거늘좌우의구경하는재모다대쇼하더라렐귀비  
 또사으를집어들고소리하야왈륙국을동일하는진나라렐귀비여괴잇스니홍란성은  
 물너갈지어다하고사으를굴님께과연놓혼사으를엇은지라국제변하야윤부인의편  
 이십분위리하야승휘흔번사으에달넷거늘란성이츠퉘파를홀녀국세를들너보며쇼왈  
 하늘이홍흔탈을내샤미양위급흔스세를두당케하시느도다하고옥슈를놓히들어정  
 신을모아흔번더지며물너안거늘모다보니임의놓혼사으를엇어일국을대첩하엿다  
 라란성이랑량이웃고잉모비에포도주를그득부어렐귀비를주며왈공주는금지옥엽  
 이라렐귀비이제행마를잘못하야패하얏스오니시벌하느이다하거늘공주대쇼왈군  
 중에희언이업느니이잔을내먹으리라하고바다마시내대개이다음윤부인을권코저  
 함이러라공주다시일국을버리고사으를더저천히행마홀시반관이못되야윤부인의  
 국제십분위리하나라란성이웃고사으를집어와내쌍검과설화마를가져오라흔탈이아  
 니면이급함을구치못하리로다하고흔번사으를더짐애국제다시변하야공주의편이  
 급히물너여흔번더지는덕달넷거늘공주우으며소매를거두치고반귀비의가진사으  
 를써서왈적제급흔죽련즈도부흥노를천정하시느내맛당히즈장출전하여즈용을  
 판단하리라하고사으를놓히더지며무릎을치고랑랑소리에좌위모다봄애과연놓  
 혼사으를엇어대첩하얏더라공주대쇼하고천히일비를들어윤부인을권하니윤부인

이쇼왈첩은실로주량이업서공주의벌하심을감당치못할가하느이다공주다시대쇼  
 왈벌주를마시는재엇지주량을말하리오나도아까취흔술이지금저지아니하얏  
 스니부인은부절업서스양치물으쇼서윤부인이홀길업서미쇼하며잠잠흔술후란  
 성을주나라란성이쇼왈첩은유공무죄하니벌주를맛봄이원홍치아니리잇가흔대공주  
 또대쇼하고인하야비반을나아와제량을권하니일시대취흔지라렐귀비다시쌍륙판  
 을다가노코란성을보며왈첩이비록무지하나라랑즈와내기를당하고두판을쳐즈용을  
 결하리라츠시란성이역시십분미취흔지라발일흔괴운이미우에그득하야왈귀비는  
 몬져내기를말하쇼서렐귀비쇼왈첩이만일지거든란성의소청을유령시종홀거시오  
 란성이만일이괴지못흔죽검술을잠간구경코저하노라란성이쇼왈첩은귀비의품은  
 지조를모르오니무엇을청하리오괴귀비넵히안졌다가미쇼왈렐귀비의장성곡은진  
 국의유명흔바라란성은이를청하쇼서렐귀비웃고하락후량인이서로덕국하야렐  
 귀비의등등흔괴제와란성의민첩흔슈단으로덕슈풍진에초한이정봉하야반향을다  
 도니좌우의구경하는재들너안저도로허쌍륙의정신이업고다만렐귀비의패활흔과  
 흥란성의다지흔거동을척척칭찬하더라홀연란성이크게소리하야사으를더저왈귀  
 비는장성곡을셀니불을지어다하거늘모다보니렐귀비임의홀수업시되얏더라렐귀  
 비웃고다시판을버려왈장성일곡은첩의홍중에잇스나다시흔판을쳐란성의검술을  
 보고저하노라하고사으를굴니며행마를저촉홀시란성의국제종시성흔지라공주이

하좌우궁녀와 모든 구경하는 재바야흐로 검술을 구경하고 저야 일제이 털귀비를도  
 아이김을 보라 더니 란성이 또 놓은 사으를 침애 반과량비일시에 소리하고며 옥수를 썰니  
 들어 쌍륙판을 쳐왈 란성은 검술을 너모앗기 지말라 혼대그사으다 시골너 털귀비 득첩  
 향앗거늘 란성이 쇼왈 인종승련이라 션련량량은 다만 그고은데하고나를 돕지 아니하  
 는도다 하거늘 일재대쇼하더라 털귀비에 몸을 니러 반과량비를 보며 왈 란등이 비록  
 나의 추흔거동을 조롱코저하나 본디 지분을 단장흔대장취라엇지으녀즈의 슈습흔티  
 도를 지으리오진국제기를 명하야 큰북을 면상에 달고 친이 북채를 들고 소매를 썰쳐흔  
 번드러가며 북을치고 혼번물너서며 장성곡을 불으니 북소리는 연연하고 노래소리는  
 흥량하야 심분쾌활하니 기가에 왈

萬里長城

壯士

黃河水

蓬萊

童男

만리장성싸흔장스흙도지고 돌도지고 황하슈를 메엿스나 봉리바다 못메엿다 동남

童女

萬里長城

萬古英雄

經綸

長城

三

동너섯고잔비가 더니아니오네 두어라 막아도 못막을 건여류세월인가하노라 삼

尺劍

長城

萬古英雄

經綸

長城

三

고장성아래 생을싸니 북방찬바람에 얼골고은더 각시야 양도물고듯도물고약티드

長城

北方

關氏

羊

長城

三

고식집갈제궁하야 왕쇼군의 고은티도나느부러아니하네  
 털귀비노래를 못치고 북채를 더지며 대쇼왈이느진나라계집의 생을싸며서로 화답하

야 불은노래라 첩이 또 혼려항에 성장하야 어려서 흥든구습이지금까지 괴역하더니  
 혼번셔상에 우음을 도음이 나 전혀 란성의 검술을 보고저하야 취졸을 사양치아님이니  
 이다란성이 미쇼하고 그쾌함을 칭찬하며 좌우드러부중에 가부용검을 가져오라하니  
 초시임의 일락셔산하고 궁중등축이 휘황흔지라 란성이 공쥬씩고왈 금야명월이아름  
 다오니 잠간후원에올나쇼요창회하심이도흘가하느이다공쥬흔연이니러제랑과모  
 든궁녀를다리고다시원중에니르니월식의만공흔티목엽의찬이슬이분분하야가을  
 밤경개흥금이청량하고정신이상연하더라야이오연부제기쌍검을받들어드리거늘  
 모다구경홀시금옥으로 단장하고문패로삼엿스니그기리불과삼척이오무검기플넙  
 못더라란성이 들을보라보고 혼번짜혀들매서리긋흔검광이월광을다도와 혼졸기서  
 괴두우간에쏘이니안목이현황하고습습흔찬괴운이사름을엄습하거늘공쥬키용차  
 란왈이거슨지극흔보리라하늘이란성을주심이니그광채동인흙은란성의지질이오  
 그범치못홀괴상은란성의지죄로다록티홍진이추슈정신을그리오지못하야 혼조각  
 미음이천추만세에미물치아니하리니만일란성이아닌죽이칼이쥬인업는칼이될거  
 시오이칼이아닌죽란성의지조를빚내지못하리도다 털귀비더욱사랑하야 저삼어루  
 문즈며춤아손에늦치못하거늘괘귀비쇼왈 쓸줄모르느칼을더긋치욕심내니랑이만  
 일잇은죽무엇하하느노털귀비쇼왈 내이칼을몬져엇던들남으로남만을항복받  
 고복으로 흥노의머리를버혀단서털권의공명이 휘황하야 란성후를봉홀지니엇지구

上林苑

구허곡귀비의동렬이되야은총을다도며아미를투과음을감슈하리오하거늘모다절  
 도하더라란성이칼을밧아들고들을브라비회주져하더니홀연간곳이업고일진청풍  
 이수플뫓히니라남애징연호갈소리임의반공에들니거늘모다대경하야월하에브라  
 봄애몽몽호푸루안기공중에니라며상림원나무뫓을들넋넋디분분호목엽이일시  
 에셔러져일장풍우를일췌더라초시일쌍공작이나무스이에잠드럿다가늘나는라편  
 편이비회하며동으로늘매동에도징연호갈소리오셔호로늘매셔에도징연호갈소리  
 라동셔남북에무수호부용검이셔리긋치늘니며징연호갈소리근치아니하거늘그  
 공작이형세급흔지라비단느래를펼치고갈바들물나습히울며사름의압호로다라드  
 니털귀비에취슈를들어공작을그리음애섬홀호갈날이털귀비두상에둘너징연호  
 갈소리모골이송연하거늘공작을바리고황망이공주의압하다라드니공취쇼왈귀비  
 의평일담대함으로엇지늘는공작의신세되호호대좌위박장대쇼하더라아시오란성  
 이쌍검을들고표연이공중으로느려서니모다도로허송구하야말이업거늘란성이랑  
 연이쇼왈귀비느머리우의치화를느려보쇼셔호대털귀비더욱늘나욱슈를들어치화  
 를취하야즈세히보니뫓넙식마다검흔이랑자하야낫히아로श्यक분공교호하더라  
 일채대경차탄하거늘란성이또우으며좌우드려원중의락업을보라하니넙식마다검  
 흔을머드러낫낫히같나젼더라털귀비바야호호란성의손을잡아왈내랑즈를호하거  
 국가인으로알앗더니이제봄애런디조화의현묘호호슈단을가져욱경선아의적강

함이아닌죽남히보살의후신이출세호하거늘이다공취쇼왈내일죽세간에검술이유  
 전함을드럿스나이긋치목도함은처음이라호갈로만인을디덕함은혹괴이치아니하  
 거니와삼시간에무수목엽을낫히버힘은궁구하야도셔듯지못홀바오류신의중탁  
 함이공중에느라왕리섬홀하고형영을보지못함은만일환술이아닌죽안목을속압이  
 라이무슴되호원컨대그즈세함을듯고저하노라란성이웃고말하니무엇이라하느고  
 하회를보라

데오십회

상춘원의 단풍과 국화에 지귀를 맞나고

즈신년의 겨울우뢰간악호무리를쳐치다

賞春楓菊遇知己  
紫宸冬雷破奸黨

각설란성이공주를디하야왈고시에운하되일음일양지위되오음양불측지위신이라  
 하니신묘지리를구설로형용치못하오나대범세간에세가지되잇스니왈유도셔삼과  
 라유도는정대하야도리를주장하고도셔은신묘하야허황흔디갓가오니이제검술은  
 도가지류의적은술업이라만일사름이정대호도리를다가평성이화길호죽검술의신  
 묘함을무엇에쓰리잇고연고로정인군즈는이를류의치아니하느니첩이표박종적으  
 로명되피이하야총명정신을잡술에모손하니지금도로허추회하느니라엇지죽히드  
 르실게잇스리잇고공취키용칭찬하시며그말이정대함을더욱탄복하더라야심후연

석을파하고모다물너날서공위량부인파제량의손을잡고작별왈모회쇠경에멀니써  
 남을허하지아니하시기아죽귀국할지속을덩치못하얏스니우리맛당히이곳치다시  
 모히리라털귀비특별이란성의손을잡고뜻치아니하며련련왈첩은추솔흔인물이라  
 엇지고인의지를브라리오마논의연이스모하논심스를능히저브리지아닐쇼냐란  
 성이쇼왈이논오히려순설잔허언이라진기그러할진대엇지후과를머머리고인을흔  
 번심방치아니리오털귀비패락하고반괴량귀비를보며왈우리삼인이맛당히수일잔  
 연부에가금야미진흔정회를퍼리라반귀비왈만일진왕이허하지아니하신즉엇지하  
 리오란성이쇼왈귀비일즉장안청루의방탕흔구습을브리지못함으로진왕씨조속을  
 밧음이나연왕부취봉루의주문이바다곳고란성후홍흔탈이입덩흔보살과다름이업  
 스니무엇을념려하시리오모다박장대쇼하며거름이궁문밧게니름을쳐듯지못하더  
 니홀연갈도소리나며등축을휘황흔중진연량왕이또흔퇴조하고서로소매를련하야  
 할문으로나오거늘제량이망망이작별하고수리에오르니연왕이또흔진왕과명일다  
 시복을말하고부인과삼랑을다리고수리를련하야부중으로오니라수일후털귀비진  
 왕씨고왈홍란성은첩의심열성복하논봉위라흔번심방할연약이잇스오니명일량귀  
 비와곳치연부에가든녀을가하논이다진왕이쇼왈량등은란성을심방코져하나는  
 연왕을익우로아는내내나히삼십이못되냐관작이높고부마도위로천왕과무이흔고  
 로외반의교유흔이적어평성에벗이업습을흔탄하더니련은을납스와수일연석에연

왕과형데지의를미자흥금이무잔홀뿐아니라문무쌍전하고총회겸비하야진짓개세  
 군지오통류인물이라장찾지고허심하야금석지교를밧고쳐하노니중양가절을기드  
 려연왕부상춘원이도타하니룡산비주로종용심방할지라량등도그때를기드려란성  
 을회샤흔이무방할가하노라삼귀비대희응락하더라여류광음이절셔를지축하야로  
 포한화논만향을도하고상업은이월화를식기하니츠사는구월구일이라연왕이취봉  
 루에니름에란성이쇼왈첩이두어말국화주를비져중구가절의가흥을도으실가하오  
 나다만공부히의죄적이업서락모하논풍치를보지못할가하논이다연왕이쇼왈내남  
 방슈지로조년등과하야봉우에교유흔이업스니량의쇼쇼흔이비록맛당하나근일새  
 로사관봉위잇서흔번중용이모험을연약하엿스니량이능히불시지슈를썩홀쇼냐란  
 성이흔연덕왕이논귀흔말습이라첩이부중에드러온지몇히에일즉상공의봉우상중  
 하심을외음지못하얏더니감히못잡는니누구이시니잇가연왕왈이논별인이아니라  
 이에진왕이니진왕의위인이것흐로본즉풍류호방하나중심을말할진대심원흔성각  
 과침중흔지견이우리로당치못할곳이만하내장찾김히사피고져하노라언미필에  
 좌위보하되진왕이밧게오섯다하거늘연왕이즉시몸을너러외당에나와좌덩레필에  
 진왕이쇼왈금일은중양가절이라괴관비준이심히무료하더니홀연형을싱각하고왓  
 스니형이능히등고쇼창홀흥치잇슬쇼냐연왕이쇼왈데논본디쇼졸흔서성이라담연  
 이절세감을니젼더니추흔쇼첩이잇서황화빅주를신근이권하기형을싱각하얏더니

형이능히불속지각이되었도다하고인하야란성과수작흔말을하고서로대쇼하며좌  
 석을옴겨상춘원셔편석티우에자리를베풀고연왕이진왕의손을잇셔러원중이니르  
 니란만흔단풍은아츨날에비최여비단장을드리웠고반기흔황국은셔리빛을써여그  
 옥흔향내를보내니량왕이디상에올나황성만호의즐비흔물식을굽어보며성의청산  
 의동창흔경개를바라보아각각덩좌후일변가동을명하야락업을주어차를다리라하  
 고미미흔담쇠흔치지아니하니이때털귀비또흔반귀량귀비와수삼궁녀로더브러임  
 의취봉루에니르렸거늘란성이션련량숙인으로취봉루에연석을비설하야안호로삼  
 귀비를접티하고बाट그로상춘원에비반을진비하야후투호와쌍륙을가져승부를다도  
 며가무와스죽을드러티킵힘이여류하더라츠시량왕이국화가지를색거광주를삼아  
 서로삼스비를마심애진왕이자못취하야연왕을보며왕양형아고인이중양가절을칭  
 도함은양기를앗김이아니나련디만물이이괴운을빌어성동활발하느니고지성인이  
 성리지후를말습하야침즈함을공부함은장춧이괴운을길너크게쓰고저함이라화진  
 이오륙세에말을비호고심여세에글을너어고금스적과성패흥망을홍중에강마함은  
 장춧치군덕민하고론도경방하야고요지설을즈괴함이라니우연이조년등과하야십  
 륜세에부마도위되니련은이망극하야부귀비록극진하나국쇼고법이괴이하야도위  
 는게데업는작품이놉하흔척종실과다름이업스니비록구구흔은되잇스나무엇에쓰  
 리오고인이말하되나물색리를맛본후에빅스를가히경영하다하얏스니이제괴환지

복과교량지미사름을그릇쳐화진으로되타무료흔몸이되게하니엇자우읍지아니라  
 오송나라왕진경은저후이결비하나부매된후로쇼덩일을참섭지아니하고완호지물  
 로평성을독락하니모르느야는왕도위의풍류다저함을칭찬하나유식자는맛당히그  
 평성을차석할지라화진이비록왕진경의저후를당치못하나또흔그뒤짐을즈괴치아  
 니하더니진국에가정스를못지못하교화유탁이미쳐빅성에게너르지아너래취멸  
 니떠남을초창하야다시취국함을허하지아니하시니각골흔련은을도보흔싸이업스  
 나화진의독셔흔본의아니라연고로무료흔홍금을풍류로쇼일하니양형은덕망이고  
 명하고스업이훤혁하야고인에양두치아닐지니엇지화진의방탕함을웃지아니하리  
 오연왕이쇼알창곡이비록조감이업스나엇지화형을방탕하다하리오다만구구소망  
 은화형이비록대신잔관의보도직잔함과출척하느직척이업스나또흔국가휴척을로  
 치할지라종용연거에던안을갓차이피셔가인부즈크치담쇼풍잔함은외조저상에더  
 함이잇슬지니또흔스업이라엇지스스모음을허히하리오진왕이키용답왈형언은  
 금석지언이라맛당히닛지아니하려니와내또흔심궁에날마다시녀궁첩을디하야쇼  
 덩득실에귀먹고눈어두운사름이니엇지양형의부락을감당하리오방금성련지저상  
 하야가급인족하교스방이무스하니화진의소원은장춧츠시를루진왕인슈를박치고  
 시쥬풍류와강산풍월로여성을보내고저하노라연왕이탄왈형이이제청춘쇼년으로  
 잠은뜻이이로치로성하니창곡의우렐배아니로다창곡은본디남방포의로성은이망

극한사람자이 파분하고로 무흔지후이 직척을저버려기구지심이전전공공하야 박빙  
을끓은듯하니 맛담히상표하야 관직을스면후량천을받들어던원에도라가들이  
두하고히기우는락식이업게하리라화왕이이에연왕의손을잡고란왈고인이지과를  
중히알면그충곡을속이지아님이라화진이무엇을알니오마는형이삼십이못되야출  
장입상하고공명훈업이일세에진동하니 권세조명을기우리고화복이장악에달녘다  
홀지니우리황상의일월지명으로비록풍운어수에제위류송하나정히지식잇는군  
의겸공조회할때라화진의이말이다만봉우를스랑하고국가안위니화진의사필이엇  
나양형은국지동량이오민지표준이라양형의안위는죽국가안위니화진의사필이엇  
고말이김흠을괴이히녀이지말라연왕이이말을듯고구연이웃깃을쓸며감루를먹여  
왈근일봉우지되업슨지오래더니화형이창곡의불민흠을버리지아니하고그블레흠  
을지도하니약셔지연을엇지웃깃에쓰고간폐에셔이지아니리오하고이날부터연왕  
은진왕의충적유신흠을탄복하고진왕은연왕의정대겸양흠을공경하야서로지과지  
위되니라아시오셔양단풍이더욱찬란하야구추풍광이취흥을돕는지라다시수비를  
마신후도라가니라차셜광음이홀홀하야런지죽위하신지임의구년이라동심일월갑  
조동지에런지조신던에던좌하야군신진하를파하시고빅관이되출홀시홀연홀소리  
우뢰은은굉굉하야던각을흔들거늘던지대경하야좌우를보시며문왈겨늘우뢰지변  
이아니나일기근신이주왕등지에일양이싱하오니금일퇴성은지변이아니라상세될

가하느이다던지덤두하시니그뜻을니어빅관중왕왕이표를을녀상셔를말하느재잇  
스니그날연왕이듯고개연상소왈

신양창곡은언고지명왕이 지변을말하고상셔를못지아니 흠은하늘을공경하야덕

을닥고저흠이라연고로시전에왈경던지노하야 무감희에라하니은지상곡과주지

반풍이막비지앙을인연하야덕을닥금이라후세인군은지앙을듯고두려워아니하

고아당하느신해상셔를다도와칭송하니한지과린관송지던세천추의쇼쇼될뿐아

니라나라를병드리고인군을동락하니신이미양스기를보다가여과니르러척을덤

고히회탄식하야개연유례흠을저듯지못하얏습더니 불힝금일에외제괴상을폐하

조정에다시보오니신의모음이셔늘하고골절이놀나와그닐을바를아지못하느이

다신은써하되상셔와지앙이인군과달녘스니 폐해이제스스로싱각하야인정덕터

이스히에흡족하고창싱에개미춤이잇슨즉비록우연홀풍위라도죽히상세되려니

와불연하신죽가령경성경운이하늘에나타나고과린봉황이싸에그득하나죽히귀

홀배업슬지라하물며겨을던동은비상흔지변이어늘아당하느무리조정을괴동하

니엇지한심치아니리잇고신이비록런디음양지도알지못호나리치로써취략  
寒心 臣 天地陰陽之道  
 홀죽가이짐작할배잇스오니신이몬져런도를말삼호고다음인스를의론하리이다  
冬至 窮陰之月 天地閉藏 萬物蟄伏 周易所謂地雷復卦  
 동지논이에궁음지월이라런디폐장호고만물이침복하야주역의소위디되복과라  
地下 潛藏 禮記月令 三月 後雷乃  
 우뢰디하에잠장하얏스니엇지소리들니리오연고로례기월령에삼월이된후뢰내  
發聲 季春月令 仲冬 行 災變 人事  
 발성이라하니이제계춘월령이중동에히흥은때아닌지변이라또한인스로말할진  
兵火之餘 民生困苦 樂歲 凶年  
 대병화지여에민성이곤고하야락세를맞나되주린빛을면치못호고흉년을당호죽  
流離道路 弱 溝壑 盜賊 甘心 宮中深  
 류리도로하야약호자는구학에업더지고강호자는도적됨을감심하거늘궁중이심  
邃 廟堂 遼遠 愁慘 舉動 黨囂 騷動  
 슈호고묘당이요원하야수참호거동은눈으로보지못호고호호호소동이귀에들니  
照臨 舉動 和氣 雨順風調  
 지아니나공변된하늘이놓히조림하야엇지모르시리오회귀잇는마에우슈풍요호  
陰陽調和 冤氣消滅 天地滯塞 災殃 噫 痛哉 陛下 臣  
 야음양이도화호고원기소감에런디체석하야지앙을느리오니이다세섯호리치  
目今天下 交象 父君 寵絡 祥瑞 伏願陛下  
 라목금런하에이호호상호로장차무슴상셔를바라리잇고희희통지라폐하의신  
子 今日表 天道 欺罔 父君 寵絡 祥瑞 伏願陛下  
 재엇지참아런도를괴망호고군부를롱락함이이에밋철줄알앗스리잇고복원폐하  
今日表 祥瑞 欺罔 父君 寵絡 祥瑞 伏願陛下  
 는금일표를을녀상셔를말호는자를일이다스려멀니물니쳐첨유지풍과기망지

습을징계호쇼셔신이다시복념건대우뢰라호는거슨런디호령이라조화를고동  
習 懲戒 臣 伏念 天地 號令 造化 鼓動  
 하야만물을발싱호는바니이제중동지월에이호치급급히흥호는런하만민이침복  
萬物 發生 仲冬之月 急急 行 天下 萬民 蟄伏  
 곤체하야대한양춘을폐하색브라노고로하늘이동뢰로써폐하를경동하야총명에  
困悴 大塞陽春 陛下 冬雷 警動 聰明睿  
 지를가면하야발호시령호심을하디치말게호심이라복원폐하는만기를힐쓰사  
廊 揮 乾 斷 勵 精 圖 治 安 逸 戒 懼 之 心 天 意  
 화회건단하시고려정도치하야그안일흥을도화말으시고계구지심을두샤런의를  
報 答 臣 大臣 之列 處 陰 陽 變 理 災 殃 非 常 羣 僚 董 督  
 보답호쇼셔신이대신지렬에쳐하야음양을섬리치못하야지앙이비상호디밋스오  
曠 職 罪 臣 處 陰 陽 變 理 災 殃 非 常 羣 僚 董 督  
 니광직지못호죄를도망치못호지라원컨대신의벼슬을레척하샤군료를동독호쇼  
曠 職 罪 臣 處 陰 陽 變 理 災 殃 非 常 羣 僚 董 督  
 서

런지람필에구연이좌우를보시며단왈선지라충언이여하시고즉시비답왈

경의익군의국호는정성은조조이잔폐에스못치니이엇지평일경에게브람이아니  
卿 愛君愛國 字字 肝肺 平日常 勉從

리오아름다운말을닛지아니호려니와벼슬을스면흥은뜻بات기라면종치못호지니  
卿 盡忠 朕 辭免 勉從

경은더욱진충하야집의허를을김게하라

즉시상셔를치하호는자를일변사출하라하시니모도십여인이라원리츠시락당이오

히려조당에버러잇서로군의죽은후로스스로공겁호고은근이둔취하야흥모를쌈이

韓應德 于世忠

고져하더니 의외런제연왕의 말을인하야로 군문하에 출입하든 자를 일병사하시고 못  
 지말라 하심애 읍흐다 쇼인의 심장이여 망구흔던은을 모르고 임의성로를 엿음애 다시  
 득실을 근심하야 레부상셔한응덕이 잔관우제충등수십여인으로 만히 상의왈우리  
 비록샤명을 엿었스나 탁당지목을 도망치 못할지니 만일락교청운을 하직하 고청산벽  
 운에 여성을 보내고져하즉말할배업거니와 다시 환로에여년을 두어부귀를스 모할진  
 대엇지방락이 업스리오 한상제탄왈 내 비록 불스나 만조청당이 다 겹출재업스되오  
 죽연왕일인은로참정의 지국으로도 당치 못하바라 임의그 사름을제어치 못할진대출  
 하리글슬하야 문하에 출입하야하 고 심은바를 구할만차지 못할가하노라우제충이탄  
 왈합하의 정류이불가하도다 엿기를출추며아니나누음으로달닐재짜로잇느니연  
 왕은 비록년쇼하나그 무법기태산교악이라 엿지심상흔슈단으로 요동하리 오제충은  
 드르니고어에운하되득군행되라하니 몬져런충을 엿지 못하 고 엿지소욕을일우리  
 군장은정도로 득군하 고 쇼인은 권도로 득군하느니 정도는 우리비의 말할배아니나  
 지된되업스리오하 고 서로만히귀의 말하며 쇼왈이 논로참정의 평심법이 라우리  
 또흔새를기드려싸하리라하 고서로히여져이 날 불히 탁당중심복지인을 노아 방계곡  
 경으로 조영동정을 규찰하더니던 무심치아니하샤 청던벽력이 쇼인의 여당을 썩치  
 고져하야 일성동되즈 신던을흔드니 모르자는던의 요순지성과 연왕의 직설지충  
 으리음양순스시하야 태평성덕에애아닌 변을의심하러니와 하회를 본즉던되쇼인

秦山 喬岳

을 위위하샤 북선화음하심을 알니니 하회를 보라

데오십일회

충역을분변하야던지름음을반포하 고 .  
 던원에도라 가라고연왕이 표를올리다

辨忠逆天子頒綸  
 歸田園燕王上表

각설한응덕우제충의 무리로군의 여당으로 홍두역을 장을 전슈하야 구차흔말과아당흔  
 정리로지앙을가져상셔라 칭송하야 군부를상시코져하더니 혼조각 쓴구름이 일월지  
 명을무리오지 못하 고연왕의상쇠정대슴엄하야 화석이박두하니 주판지세오기부지  
 쉬라오히려당량의팔로수리박 휘를막고반디불의 광치로래양을하거코져하야 한응  
 덕이우제충을 거느려일장상소를지어던 폐에박치니 대강왈

禮部尙書臣韓應德等

伏以天地肇判

後陰陽

古人

陽氣

陰

氣 禮部尙書臣韓應德等

伏以天地肇判

後陰陽

古人

陽氣

陰

氣 禮部尙書臣韓應德等

伏以天地肇判

後陰陽

古人

陽氣

陰

氣 禮部尙書臣韓應德等

伏以天地肇判

後陰陽

古人

陽氣

陰

氣 禮部尙書臣韓應德等

伏以天地肇判

後陰陽

古人

陽氣

陰

氣 禮部尙書臣韓應德等

伏以天地肇判

後陰陽

古人

陽氣

陰

氣 禮部尙書臣韓應德等

伏以天地肇判

後陰陽

古人

陽氣

陰

氣 禮部尙書臣韓應德等

伏以天地肇判

後陰陽

古人

陽氣

陰



당풍속이 지일을 당호족인가의 조손된 재물을 받들여 부모 외 헌수하고 덕담으로 복  
 록을 비오니 이네 넷 거슬 버리고 재거슬 취하여 화과를 부름이니 일로 본 즉 상표 진하  
 흠이 곳 하여 의리에 대패치 아닐지라 복유 황폐해 예성문무하야 춘臺玉燭 堯舜  
 지치를 빗내시니 우순 풍도 고시 화세 풍하야 지앙이 쇼멸하고 상서를 기드림은 페  
 하의 신조된 자의 셋 셋 함음이라던디 음양이 비왕래 리하야 지 일 퇴성이 일양을 보  
 하거늘 폐하의 겸양 하시는 성덕으로 소심익익하야 옥색이 경동하시며 지변아님을  
 무르시니 근제신이 실상으로 앙달하고 지명 백관이 표를 받들어 하례 함은 다름이  
 아니라 구구한 군지충이 무단이 놀나심을 위로코져 함이 오또 헌던디 운행 지리를  
 불협이라 이제 연왕 양창곡이 상소 탄박하야 구함말 숨과 억록 하스기비 단제신을  
 론박 할 썬아니라 폐하를 괴망 함이 오폐하를 괴망 할 썬아니라 던도를 속임이니 신등  
 이그 뜻을 아지 못하느이다 희희라 군부들 아담 함은 불과 은총을 요구하야 부귀를 탐  
 함이나 인주를 공동하고 조명을 겸억 함은 이엇지 무군 지심을 포장 할 재아나리오 신  
 등이 듯스오니 사이 팔만과 억조 만민이다 만중 국에 연왕 잇슴을 칭송하고 폐하의 은

덕을 말하는 재업 다하니 이엇지 국가의 복이 리오 신등이 듯스오니  
德 國家 福 臣等

츠시한 림혹 시탑전에 부복하야 이상소를 버려다 밋쳐다 버지 못하야 던지 홀연 옥석이  
 변하시며 던한 이씩씩하야 크게 소리 왈혹스느 버거를 굿칠 지어 다 하시고 좌우를 보시  
 며 왈 이상최엇더하노 좌위 무곡하더니 마출진왕이 렴외에 섰는지라 던지 특별이 진왕  
 을 향하야 사문왈 경은 보건대 한응덕의 상최엇더하노 진왕이 개연왈 폐하의 일월 지명으  
 로 충역 지분을 거울코치 빗최이시니 신이엇지 감히 말슴하리잇가 마는 잔당의 무업 함  
 이에 밋스오니 만저로 렴스 의고서를 인증하야 던 총을 현란하고 헌신을 구무하야  
 조명을 번복고져 함이니 음홀 함 경문과 파측 함의 세로 룬의 전 슈 함 심법인 가하느이다  
 던지 진노하야 하교 왈

朕 向日 盧均 黨 赦  
 玉石 俱焚  
 奸黨 一一 削黜  
 上自公卿 下至微末之官  
 盧均門前 出入  
 一並 削黜  
 終身 禁錮  
 上疏中 韓應德于世忠等十餘人 爲先錦  
 衣獄 具格 拿來 嚴囚 入啓  
 嚴囚 入啓

런저하고를 못치시고 연왕을 밧비 부르라 하시니 연왕이 입의 인언을 맛나 성밧게 나가  
 디되 홀다 하거늘 런저 옥식이 참담하사 할루왕 연왕의 충성으로 이긋흔 충언을 당하니  
 이는 짐이 연왕을 사랑함이 연왕의 집을 사랑함만 못하련과라 읍흐다으 서진집에 집을  
 안치고 동량을 뻗고져하시니 고금련하에 이긋흔 홍역이 잇스리 오하시 고 옥슈로셔안을  
 치시며 어답에나 안즈사 할릴후스를 보사 지필을 가져 전지를 쓰라 하시 고 십항륜음을  
 친이 부르시니 대강왕

賢臣 親 小人 先王 政事 朕 德 薄 奸黨 朝廷  
 현신을 친히 하 고 소인을 물니 친은 선왕의 큰 정사라 짐이 덕이 박하야 잔당이 조당을  
 管試 塞心 周公 流言 霍光  
 상시하시니 엇지한심치아나 리오 넷적의 주공이 류언을 맛나 고 광광이 춤소를 밧엇스  
 周成王 漢昭帝 管蔡 上官桀  
 나 주성왕한쇼데나 히어 림으로 관채상관결이 그 뜻을 시험코져함이 라 만일성왕과  
 昭帝 聰明 周漢兩國 宗社 毛骨 竦  
 쇼데의 총명이 아난 주한랑국의 종새위티홀지니 지금성각하나 오히려 모골이 송  
 然 朕 三十 即位 十年 奸黨 膽大 賢臣 搆誣  
 연하거늘 이제 짐의 나 이삼십이 오즉위호지 십년이라 잔당의 담대함이 현신을 구무  
 朕 籠絡 此習 懲戒 人君  
 하야 짐을 롱락 고져하시니 만일 츄습을 징계치아나 하면 장춧인군업는 나라이 될지라  
 朕 今 日 綸音 小人 小人 賢臣 賢臣 向 日 盧均 朝  
 짐의 금일륜음은 쇼인의 쇼인됨과 현신의 현신됨을 북히고져함이니 향일로균이 조  
 廷 濁亂 病 宗社 存亡 朝夕 肝膽  
 덩을 탁란하 고 나라를 병드려 종사 존망이 조석에 잇스니 지낸일을 생각호즉 잔담이

서늘하거늘 이제 현덕을 덕우세충이 흥역여당으로 조당이 용티하야 성명을 보전하니  
 韓應德于世忠 凶逆餘黨 朝廷 容貸 姓名  
 맛당히구습을 못치릭비조심함이 올거늘 도로 허흥두역장이로균의 슈악을 승습하  
 祥瑞 稱頌 泰山明堂 天書 做出 太清宮中 神  
 야아당호말로 상셔를 칭송하시니 이엇지래산명당에런셔를 주출하 고 대청궁중에 신  
 仙幻形 手段 朕 昏暗 哪吒 平定 鞠躬盡  
 선을 환형하든 슈단이아나 리오 짐이 비록 혼암하나 두번속지아닐지라 지어 연왕의  
 天地神明 照臨 南方 出戰 哪吒 平定 鞠躬盡  
 관일호충성은런디 신명의 조림하신바나 남방에 출전하야 나탁을 평정함은 국강진  
 諸葛武侯 忠心 儀鳳亭前 風流 諫 斧鉞 避 萬里惡地 面折  
 취하든 제갈무후의 충심이 오의 봉정전에 풍류를 잔하야 부월을 피치아니 함은 면절  
 廷爭 汲長孺 風采 朕 盧均 譖言 信聽 萬里惡地 賢  
 덩정하든 급장유의 풍채라 짐이 비리지 못하야 로균의 참언을 신령하 고 만리악디에 현  
 臣 放逐 不遇 憾慨 歎息 賈太傅 燕王 一片丹心 離騷 鵬鳥  
 신을 방축하니 비록 굴삼려의 충성과 가대부의 착함으로 도리소를 노래하 고 복도를  
 君父 死生 賈太傅 燕王 一片丹心 離騷 鵬鳥  
 몸을 니젓스며 군부를 사랑하야 사성을 무릅쓰니 죄수로 상표하야 해상행궁에 취몽  
 單騎 燕巢城下 胡兵 衝突 數百年宗社 慈父孝子  
 을 세우치고 단기로 물을 달녀 연소성하에 호병을 충돌하니 수백년종새 오늘날날어  
 億兆蒼生 魚肉 免 功 朕 世忠等 朕  
 지지아나 하 고 억조창성이 어육을 면함이 이공이 뇌공이 노침은 드름애 조부효조는  
 間言 知己朋友 毀謗  
 잔언이니 르지 못하 고 지기붕우는 취방홀재업다 하시니 이제 세충등이 짐을 안치고 연

왕을이  
王 奸黨 膽大唐突  
호치참소하시니 간당의담대당돌함이엇지이에  
韓應德 南海不毛鳥

로투리  
投配 于世忠 北方大猶島 投配 時刻內 發配 大赦天下  
고우세충은 북방대유도에투리하시각너로말리야  
비록대사련하

나총신  
終身放釋 疏下十餘人 遠惡地 竄配 後 綸音 諸郡 頒布  
방셔지못하게하고소하십여인은원악디에  
찬리훈후이 룡음을제군에반포

하야방방곡곡이  
方方曲曲 朕 賢臣 親 小人  
거러써짐의현신을천히하고소인을멀니  
하는뜻을알게하라

던지 룡음을느리시고발비음을지축하  
신후중스를보내사다시연왕을돈유하야부르  
시니연왕이 더욱황축불안하야점점교외로  
멀리나간대던지드르시고하교와  
연왕이 짐의뜻을모르느냐이  
호치애매하니는 짐의정성이  
밋부지못함이라도하시고  
법가의의장을지축하  
사장초천히맛고져하시니  
연왕이런저니르심을듯고  
훈일업서입성을  
할지런지임의출궁하셨더라  
연왕이복디청죄하니런  
지반기사량기환시  
로연왕을벗들  
어호치입결하야  
답전에손을잡으시고  
와왕치비의망극함이  
조교로잇는바  
라짐이경의심스를  
알고경이짐의  
맘을짐작할지  
라엇지이호치  
조인하는노  
연왕왕왕신  
이불충무상하와  
금일쳐디진  
퇴유곡이라우  
호으로섬리  
음양하는  
직분을일  
어지양이나  
라나고아  
래로서군  
진충하는  
도리를삼  
가지못하  
와여러  
부지람이  
니러나  
오니  
폐해  
비록  
곡진이용서  
하사그  
지후이  
로무  
함을  
추연이  
보시고  
중심이  
다름이  
업슴을  
뵈히  
사다  
시  
슈용  
코져  
하시  
나  
훈로  
신의  
정디  
빅가  
지  
물너  
갈  
곡  
절이  
잇고  
훈가  
지  
나  
아  
올  
구  
단  
이  
업  
슴  
을  
성

각지못하시  
느니잇가  
런지  
쇼  
왕  
상  
담  
에  
왕  
말  
이  
아  
니  
여  
든  
디  
답  
지  
말  
라  
하  
니  
요  
마  
간  
당의  
무거  
훈  
말  
을  
인  
하  
야  
거  
취  
를  
판  
단  
함  
은  
십  
분  
은  
당  
차  
아  
닐  
가  
하  
노  
라  
연  
왕  
이  
다  
시  
주  
왕  
성  
피  
이  
에  
밋  
츠  
시  
니  
또  
훈  
속  
담  
으  
로  
앙  
달  
하  
리  
이  
다  
려  
하  
서  
민  
이  
인  
동  
의  
히  
에  
게  
후  
육  
을  
당  
하  
야  
도  
맛  
당  
히  
벗  
그  
려  
문  
을  
닷  
고  
나  
지  
아  
나  
하  
야  
란  
리  
를  
딛  
힐  
낮  
이  
업  
서  
하  
려  
든  
하  
물  
며  
신이  
천  
만  
불  
스  
하  
오  
나  
대  
관  
지  
벌  
에  
쳐  
하  
야  
망  
극  
지  
언  
을  
듯  
고  
그  
무  
거  
함을  
조  
구  
하  
야  
래  
연  
이  
조  
반  
에  
올  
나  
빅  
표  
를  
동  
독  
훈  
죽  
신  
의  
신  
세  
는  
말  
하  
지  
말  
고  
조  
영  
의  
슈  
치  
됨  
이  
장  
차  
엇  
더  
하  
리  
잇  
고  
상  
이  
기  
용  
위  
로  
왕  
한  
응  
덕  
우  
세  
충  
은  
불  
과  
일  
키  
비  
취  
라  
조  
고  
로  
군  
지  
쇼  
인  
에  
게  
봉  
육  
훈  
재  
만  
흐  
니  
엇  
지  
죽  
히  
개  
회  
하  
리  
오  
경  
이  
평  
일  
나  
라  
를  
위  
하  
고  
몸  
을  
도  
라  
보  
지  
아  
나  
하  
더  
니  
금  
일  
엇  
지  
신  
명  
을  
앗  
겨  
국  
소의  
망  
창  
함을  
고  
련  
치  
아  
나  
하  
는  
노  
연  
왕  
이  
다  
시  
과  
복  
주  
왕  
하  
고  
평  
중  
하  
샤  
이  
호  
치  
효  
유  
하  
시  
니  
신이  
목  
척  
이  
아  
니  
라  
엇  
지  
감  
동  
치  
아  
니  
리  
오  
마  
는  
폐  
해  
이  
제  
우  
세  
충  
한  
응  
덕  
의  
비  
부  
된  
곡  
절  
이  
무  
엇  
이  
니  
잇  
고  
부  
귀  
를  
함  
하  
고  
은  
총  
을  
요  
구  
하  
야  
렘  
우  
를  
도  
라  
보  
지  
아  
나  
하  
니  
라  
신이  
이  
제  
라  
매  
를  
감  
슈  
하  
고  
은  
총  
을  
권  
련  
하  
야  
그  
나  
아  
감  
을  
함  
하  
고  
물  
너  
감  
을  
모  
른  
죽  
이  
또  
훈  
일  
키  
비  
취  
라  
엇  
지  
세  
추  
비  
와  
다  
름  
이  
잇  
스  
리  
잇  
고  
폐  
해  
또  
신  
명  
을  
앗  
겨  
국  
소를  
고  
련  
치  
아  
나  
하  
다  
하  
시  
니  
신이  
본  
디  
지  
후  
이  
천  
단  
하  
야  
거  
취  
진  
퇴  
에  
일  
호  
경  
중  
이  
업  
스  
을  
뿐  
아  
니  
라  
군  
지  
슈  
신  
훈  
후  
가  
도  
를  
정  
제  
하  
고  
제  
가  
훈  
후  
나  
라  
를  
다  
스  
리  
고  
나  
라  
를  
다  
스  
리  
후  
에  
던  
하  
를  
평  
하  
는  
니  
래  
의  
렘  
치는  
슈  
신  
하는  
근  
본  
이  
라  
신이  
말  
일  
은  
총  
을  
권  
련  
하  
고  
작  
록  
을  
함  
하  
야  
비  
회  
관  
망  
하  
며  
렘  
치  
를  
모  
물  
훈  
진  
대  
이  
는  
슈  
신  
치  
못  
함  
이  
니  
일  
실  
자  
니  
에  
제  
가  
를

못하려든 말을 떠런하를 엿지다 스리리 잇고 폐해 만일 신의 용모를 취하사 구차 이상되  
 코져하 신즉가 커니와 만일로 무흔지혹을 쓰샤론도 경방함을 맛기고져하 실진대 엿지  
 신명을 도라보아 주지아니하시느니 잇고런저 천을 드르시고 목망구에 왈우리군  
 신량인의 일편지심이 서로 거울갓치 빛최이니 어지갓치 강박하리오다 시종용상의  
 하야 출처후척에유시유종함을 생각하라 연왕이 황공돈슈하고 물너느니라 런저진왕  
 을보시며 왈 연왕의 후퇴홀의식 십분 퇴확하니 엿지홀곡절이 노진왕왕의 물너갈  
 뜻은잇슨지오래오니 곳하여 천언을 쥬인함이 아니나 금일 폐하의 레우하시느도리다  
 만성의를 더하샤 만류하심이 올홀가하오니 만일 천시에 보내 신즉간당의 소원을 일워  
 줌이오 연왕을 레더하시느 뜻이 아닐가하느이다상이 탄왈 국시 총최하고 현신이 되거  
 코져하니 짐이 누구로런하를 다스리리오하시더라 수일후 연왕이 상소하야 물너감을  
 청하니 소에 왈

臣不肖才學 聖朝簡拔 恩寵 官職 富貴極  
 신이 불肖한 재학으로 성조의 간발하시느 은총을 남스와 관직이 높고 부귀극하오니  
 戒懼之心 聖教鄭重 尊嚴 區區忠言  
 홍상계구지심이 근절하리라 오직 한 말씀으로 존엄함을 모르고 구구충언이 망녕됨  
 이만케늘그르다아니하샤 성교정중하시니 신이 더욱 황공죄송하느이다 신이 본디  
 南方布衣 家貧親老 艱難 爲 經綸才學 治君  
 남방포의로 가빈친로 함애 잔난함을 위하야 벼슬을 구함이 오실로 경륜재학이 처군

澤民 自期 知進不退 貪多務得 天寵 自量  
 티민함을 자기함이 아니라 이제 만일 지진 불퇴하고 탐다 무득하야 천寵을 밋고 자량  
 함이 업슨즉이느우호로 성은을 쥬 버리고 아래로 지방을 부름이라 그 불肖한 충함이  
 伏願陛下 臣情地 災殃 不肖不忠 君臣之間  
 더할지니 복원 폐하는 신의 정지를 속히샤 잠간 면원에 도라감을 허하샤 군신지간에  
 恩寵 長久 臣三十 疾疴 惟我皇帝陛下 天地父  
 은총을 장구케 하쇼셔 신의 나히 삼십이 초지 못하오나 본디 질병이 만습고 또 늙은부  
 母 臣情地 自奉 調攝 分數 平安 田園  
 피잇서 미양한 적히즈봉하고 고요이 묘섭함을 생각하오니 유아황 데 폐하느런디부  
 母 臣情地 官職 分數 平安 田園  
 피라 신의 정지를 불상이녀이 사관직을 거두어 그 분수에 평안케하시고 면원에 도라  
 許 恩寵  
 감을 허하샤 은총을 기리보전케하쇼셔

던지 상소를 보시고 좌우를 보시며 왈 짐이 연왕을 동량 주석갓치 밋어 치국하랴하거늘  
 朕誠意淺薄 酬酢 卿 至極 區區  
 물너갈 뜻이이갓치 급하니 이엿지 평일바라든 바리오하시고 비답하시니 비답에 왈  
 朕誠意淺薄 酬酢 卿 至極 區區  
 짐이 성의 천박하야 한번 슈작이 오히려 경의 미음을 돌리지 못하고 다시 이상소를 볼  
 落莫 朕 顧念  
 애락막흔 미음이 무엇일 홀갓흔지라 경의 지극한 충성으로 엿지이를 고념치아니  
 朕 顧念  
 하고 짐을 버리고 가랴하느뇨 경은 다시 생각하야 구구이바라느 뜻을 쥬 버리지 말라  
 臣 人君 臣下 禮 臣下人君 禮  
 수일후 연왕이 두번 상소하시니 그 소에 왈  
 臣 人君 臣下 禮 臣下人君 禮  
 신은 뜻스오니 인군이 신하를 레로부리면 신하인 군을 레로 섬기느니 무릇 레라하느

거슨살어절하<sup>揖</sup>고음하야스양<sup>辭讓</sup>함을닐음이아니라진퇴출처에대례를일치아님을말  
 흠이라만일위령으로부르고은혜로달니야하야곰진력하야밋쳐례모를거를치못  
 흠은초소위비복하천을부리는법이라신의금일처디일진일퇴에군조비부의정<sup>體貌</sup>  
 를판단할지니신비복군조지도로지처치못하오나<sup>法</sup>페해엇지비부지되로지도하<sup>君臣之道</sup>  
 시리잇고신이비복목석<sup>木石</sup>又치무지하<sup>無知</sup>고견<sup>犬馬</sup>마<sup>愚迷</sup>又치우미<sup>聖旨</sup>하<sup>愛之憐之</sup>나엇지망극<sup>情勢</sup>현은이극<sup>急迫</sup>  
 진이스랑<sup>張皇</sup>하심을모르리잇고마는<sup>伏願陛下</sup>현번성지를<sup>聖旨</sup>받<sup>愛之憐之</sup>온<sup>情勢</sup>죽<sup>急迫</sup>정<sup>情勢</sup>제<sup>急迫</sup>더<sup>急迫</sup>욱<sup>急迫</sup>급<sup>急迫</sup>박<sup>急迫</sup>하<sup>急迫</sup>고<sup>急迫</sup>말<sup>急迫</sup>숨이<sup>急迫</sup>  
 더욱<sup>張皇</sup>장<sup>張皇</sup>황<sup>張皇</sup>함을<sup>張皇</sup>새<sup>張皇</sup>듯<sup>張皇</sup>지<sup>張皇</sup>못<sup>張皇</sup>하<sup>張皇</sup>오니<sup>張皇</sup>복<sup>張皇</sup>원<sup>張皇</sup>폐<sup>張皇</sup>하<sup>張皇</sup>는<sup>張皇</sup>이<sup>張皇</sup>지<sup>張皇</sup>련<sup>張皇</sup>지<sup>張皇</sup>하<sup>張皇</sup>쇼<sup>張皇</sup>서<sup>張皇</sup>

던지람필에던안이불열하샤비답왈  
 하늘이짐을<sup>朕</sup>돕지아녀<sup>卿</sup>경의<sup>上疏</sup>상<sup>上疏</sup>외<sup>上疏</sup>두<sup>上疏</sup>번<sup>上疏</sup>니<sup>上疏</sup>르<sup>上疏</sup>니<sup>上疏</sup>이<sup>上疏</sup>는<sup>上疏</sup>군<sup>君臣之間</sup>신<sup>君臣之間</sup>지<sup>君臣之間</sup>간<sup>君臣之間</sup>의<sup>君臣之間</sup>모<sup>君臣之間</sup>음이<sup>君臣之間</sup>서<sup>君臣之間</sup>로<sup>君臣之間</sup>밋<sup>君臣之間</sup>지<sup>君臣之間</sup>못<sup>君臣之間</sup>하<sup>君臣之間</sup>  
 연고라엇지<sup>慨然</sup>개<sup>慨然</sup>연<sup>慨然</sup>치<sup>慨然</sup>아<sup>慨然</sup>니<sup>慨然</sup>하<sup>慨然</sup>리오

연왕이또다시<sup>朕</sup>상<sup>父母子息</sup>소<sup>父母子息</sup>하<sup>父母子息</sup>니<sup>父母子息</sup>소<sup>父母子息</sup>에<sup>父母子息</sup>왈  
 신은<sup>本心</sup>듯<sup>本心</sup>스<sup>本心</sup>오<sup>本心</sup>니<sup>本心</sup>부<sup>父母子息</sup>되<sup>父母子息</sup>지<sup>父母子息</sup>식<sup>父母子息</sup>을<sup>父母子息</sup>스<sup>父母子息</sup>랑<sup>父母子息</sup>하<sup>父母子息</sup>실<sup>父母子息</sup>정<sup>父母子息</sup>을<sup>父母子息</sup>버<sup>父母子息</sup>히<sup>父母子息</sup>고<sup>父母子息</sup>달<sup>父母子息</sup>초<sup>父母子息</sup>엄<sup>父母子息</sup>척<sup>父母子息</sup>하<sup>父母子息</sup>는<sup>父母子息</sup>엇<sup>父母子息</sup>지<sup>父母子息</sup>인<sup>父母子息</sup>정<sup>父母子息</sup>의<sup>父母子息</sup>소<sup>父母子息</sup>사<sup>父母子息</sup>나<sup>父母子息</sup>  
 는<sup>本心</sup>본<sup>本心</sup>심<sup>本心</sup>이<sup>本心</sup>리<sup>本心</sup>오<sup>本心</sup>다<sup>本心</sup>만<sup>本心</sup>그<sup>本心</sup>름<sup>本心</sup>을<sup>本心</sup>마<sup>本心</sup>르<sup>本心</sup>쳐<sup>本心</sup>죄<sup>本心</sup>에<sup>本心</sup>범<sup>本心</sup>치<sup>本心</sup>말<sup>本心</sup>고<sup>本心</sup>저<sup>本心</sup>함<sup>本心</sup>이<sup>本心</sup>라<sup>本心</sup>신<sup>本心</sup>이<sup>本心</sup>불<sup>本心</sup>초<sup>本心</sup>무<sup>本心</sup>상<sup>本心</sup>하<sup>本心</sup>와<sup>本心</sup>분<sup>本心</sup>슈<sup>本心</sup>

에<sup>期必</sup>념<sup>期必</sup>친<sup>期必</sup>벼<sup>期必</sup>슬<sup>期必</sup>이<sup>期必</sup>그<sup>期必</sup>릇<sup>期必</sup>이<sup>期必</sup>초<sup>期必</sup>고<sup>期必</sup>박<sup>期必</sup>빙<sup>期必</sup>을<sup>期必</sup>끓<sup>期必</sup>은<sup>期必</sup>듯<sup>期必</sup>스<sup>期必</sup>하<sup>期必</sup>크<sup>期必</sup>죄<sup>期必</sup>를<sup>期必</sup>면<sup>期必</sup>하<sup>期必</sup>야<sup>期必</sup>페<sup>期必</sup>하<sup>期必</sup>되<sup>期必</sup>불<sup>期必</sup>효<sup>期必</sup>를<sup>期必</sup>세<sup>期必</sup>치<sup>期必</sup>지<sup>期必</sup>  
 아<sup>期必</sup>님을<sup>期必</sup>그<sup>期必</sup>필<sup>期必</sup>치<sup>期必</sup>못<sup>期必</sup>하<sup>期必</sup>지<sup>期必</sup>라<sup>期必</sup>페<sup>期必</sup>해<sup>期必</sup>엇<sup>期必</sup>지<sup>期必</sup>달<sup>期必</sup>초<sup>期必</sup>엄<sup>期必</sup>척<sup>期必</sup>하<sup>期必</sup>샤<sup>期必</sup>정<sup>期必</sup>을<sup>期必</sup>버<sup>期必</sup>히<sup>期必</sup>지<sup>期必</sup>도<sup>期必</sup>교<sup>期必</sup>훈<sup>期必</sup>하<sup>期必</sup>는<sup>期必</sup>스<sup>期必</sup>랑<sup>期必</sup>이<sup>期必</sup>업<sup>期必</sup>  
 스<sup>期必</sup>시<sup>期必</sup>리<sup>期必</sup>잇<sup>期必</sup>고<sup>期必</sup>신<sup>期必</sup>이<sup>期必</sup>부<sup>期必</sup>모<sup>期必</sup>의<sup>期必</sup>만<sup>期必</sup>년<sup>期必</sup>독<sup>期必</sup>조<sup>期必</sup>로<sup>期必</sup>조<sup>期必</sup>이<sup>期必</sup>로<sup>期必</sup>자<sup>期必</sup>라<sup>期必</sup>비<sup>期必</sup>흠<sup>期必</sup>이<sup>期必</sup>업<sup>期必</sup>고<sup>期必</sup>페<sup>期必</sup>하<sup>期必</sup>를<sup>期必</sup>섬<sup>期必</sup>김<sup>期必</sup>애<sup>期必</sup>성<sup>期必</sup>성<sup>期必</sup>지<sup>期必</sup>  
 탁<sup>期必</sup>이<sup>期必</sup>감<sup>期必</sup>입<sup>期必</sup>골<sup>期必</sup>슈<sup>期必</sup>하<sup>期必</sup>와<sup>期必</sup>우<sup>期必</sup>러<sup>期必</sup>르<sup>期必</sup>브<sup>期必</sup>람<sup>期必</sup>이<sup>期必</sup>일<sup>期必</sup>호<sup>期必</sup>부<sup>期必</sup>모<sup>期必</sup>와<sup>期必</sup>다<sup>期必</sup>름<sup>期必</sup>이<sup>期必</sup>업<sup>期必</sup>거<sup>期必</sup>늘<sup>期必</sup>페<sup>期必</sup>해<sup>期必</sup>이<sup>期必</sup>제<sup>期必</sup>또<sup>期必</sup>조<sup>期必</sup>이<sup>期必</sup>지<sup>期必</sup>심<sup>期必</sup>  
 에<sup>期必</sup>마<sup>期必</sup>리<sup>期必</sup>오<sup>期必</sup>샤<sup>期必</sup>그<sup>期必</sup>급<sup>期必</sup>업<sup>期必</sup>하<sup>期必</sup>정<sup>期必</sup>세<sup>期必</sup>를<sup>期必</sup>숨<sup>期必</sup>히<sup>期必</sup>지<sup>期必</sup>아<sup>期必</sup>니<sup>期必</sup>시<sup>期必</sup>니<sup>期必</sup>성<sup>期必</sup>명<sup>期必</sup>이<sup>期必</sup>장<sup>期必</sup>촉<sup>期必</sup>어<sup>期必</sup>는<sup>期必</sup>싸<sup>期必</sup>에<sup>期必</sup>밋<sup>期必</sup>출<sup>期必</sup>줄<sup>期必</sup>아<sup>期必</sup>지<sup>期必</sup>못<sup>期必</sup>  
 하<sup>期必</sup>오니<sup>期必</sup>복<sup>期必</sup>원<sup>期必</sup>폐<sup>期必</sup>하<sup>期必</sup>는<sup>期必</sup>궁<sup>期必</sup>지<sup>期必</sup>축<sup>期必</sup>지<sup>期必</sup>하<sup>期必</sup>쇼<sup>期必</sup>서<sup>期必</sup>

던<sup>期必</sup>저<sup>期必</sup>또<sup>期必</sup>불<sup>期必</sup>허<sup>期必</sup>하<sup>期必</sup>신<sup>期必</sup>대<sup>期必</sup>연<sup>期必</sup>왕<sup>期必</sup>이<sup>期必</sup>하<sup>期必</sup>일<sup>期必</sup>업<sup>期必</sup>서<sup>期必</sup>민<sup>期必</sup>면<sup>期必</sup>출<sup>期必</sup>스<sup>期必</sup>흔<sup>期必</sup>지<sup>期必</sup>수<sup>期必</sup>월<sup>期必</sup>에<sup>期必</sup>다<sup>期必</sup>시<sup>期必</sup>상<sup>期必</sup>소<sup>期必</sup>를<sup>期必</sup>시<sup>期必</sup>작<sup>期必</sup>하<sup>期必</sup>야<sup>期必</sup>박<sup>期必</sup>여<sup>期必</sup>  
 도<sup>期必</sup>에<sup>期必</sup>니<sup>期必</sup>름<sup>期必</sup>애<sup>期必</sup>던<sup>期必</sup>저<sup>期必</sup>그<sup>期必</sup>잡<sup>期必</sup>은<sup>期必</sup>뜻<sup>期必</sup>을<sup>期必</sup>감<sup>期必</sup>박<sup>期必</sup>지<sup>期必</sup>못<sup>期必</sup>하<sup>期必</sup>샤<sup>期必</sup>즉<sup>期必</sup>시<sup>期必</sup>연<sup>期必</sup>왕<sup>期必</sup>을<sup>期必</sup>명<sup>期必</sup>쇼<sup>期必</sup>하<sup>期必</sup>신<sup>期必</sup>대<sup>期必</sup>연<sup>期必</sup>왕<sup>期必</sup>이<sup>期必</sup>입<sup>期必</sup>시<sup>期必</sup>하<sup>期必</sup>야<sup>期必</sup>  
 략<sup>期必</sup>전<sup>期必</sup>에<sup>期必</sup>부<sup>期必</sup>복<sup>期必</sup>주<sup>期必</sup>왈<sup>期必</sup>신이<sup>期必</sup>비<sup>期必</sup>복<sup>期必</sup>불<sup>期必</sup>충<sup>期必</sup>하<sup>期必</sup>오<sup>期必</sup>나<sup>期必</sup>엇<sup>期必</sup>지<sup>期必</sup>페<sup>期必</sup>하<sup>期必</sup>의<sup>期必</sup>극<sup>期必</sup>진<sup>期必</sup>이<sup>期必</sup>앗<sup>期必</sup>기<sup>期必</sup>시<sup>期必</sup>는<sup>期必</sup>은<sup>期必</sup>덕<sup>期必</sup>을<sup>期必</sup>모<sup>期必</sup>르<sup>期必</sup>리<sup>期必</sup>오<sup>期必</sup>  
 마<sup>期必</sup>는<sup>期必</sup>조<sup>期必</sup>로<sup>期必</sup>출<sup>期必</sup>장<sup>期必</sup>임<sup>期必</sup>상<sup>期必</sup>하<sup>期必</sup>야<sup>期必</sup>공<sup>期必</sup>성<sup>期必</sup>신<sup>期必</sup>퇴<sup>期必</sup>치<sup>期必</sup>아<sup>期必</sup>난<sup>期必</sup>죽<sup>期必</sup>군<sup>期必</sup>신<sup>期必</sup>지<sup>期必</sup>의<sup>期必</sup>를<sup>期必</sup>능<sup>期必</sup>히<sup>期必</sup>길<sup>期必</sup>이<sup>期必</sup>보<sup>期必</sup>전<sup>期必</sup>현<sup>期必</sup>재<sup>期必</sup>적<sup>期必</sup>스<sup>期必</sup>오<sup>期必</sup>  
 니<sup>期必</sup>이<sup>期必</sup>제<sup>期必</sup>견<sup>期必</sup>마<sup>期必</sup>지<sup>期必</sup>치고<sup>期必</sup>인<sup>期必</sup>의<sup>期必</sup>치<sup>期必</sup>스<sup>期必</sup>지<sup>期必</sup>년<sup>期必</sup>이<sup>期必</sup>못<sup>期必</sup>되<sup>期必</sup>었<sup>期必</sup>스<sup>期必</sup>오<sup>期必</sup>나<sup>期必</sup>복<sup>期必</sup>결<sup>期必</sup>성<sup>期必</sup>명<sup>期必</sup>은<sup>期必</sup>십<sup>期必</sup>년<sup>期必</sup>말<sup>期必</sup>의<sup>期必</sup>를<sup>期必</sup>주<sup>期必</sup>샤<sup>期必</sup>던<sup>期必</sup>원<sup>期必</sup>  
 에<sup>期必</sup>도<sup>期必</sup>라<sup>期必</sup>가<sup>期必</sup>복<sup>期必</sup>과<sup>期必</sup>지<sup>期必</sup>심<sup>期必</sup>함을<sup>期必</sup>면<sup>期必</sup>하<sup>期必</sup>게<sup>期必</sup>하<sup>期必</sup>쇼<sup>期必</sup>서<sup>期必</sup>상<sup>期必</sup>이<sup>期必</sup>악<sup>期必</sup>연<sup>期必</sup>왕<sup>期必</sup>짐<sup>期必</sup>이<sup>期必</sup>비<sup>期必</sup>록<sup>期必</sup>덕<sup>期必</sup>이<sup>期必</sup>업<sup>期必</sup>스<sup>期必</sup>나<sup>期必</sup>결<sup>期必</sup>단<sup>期必</sup>코<sup>期必</sup>월<sup>期必</sup>왕<sup>期必</sup>  
 구<sup>期必</sup>천<sup>期必</sup>의<sup>期必</sup>환<sup>期必</sup>란<sup>期必</sup>을<sup>期必</sup>又<sup>期必</sup>치<sup>期必</sup>하<sup>期必</sup>고<sup>期必</sup>안<sup>期必</sup>락<sup>期必</sup>을<sup>期必</sup>저<sup>期必</sup>비<sup>期必</sup>릴<sup>期必</sup>재<sup>期必</sup>아<sup>期必</sup>니<sup>期必</sup>경<sup>期必</sup>이<sup>期必</sup>엇<sup>期必</sup>지<sup>期必</sup>오<sup>期必</sup>호<sup>期必</sup>편<sup>期必</sup>주<sup>期必</sup>로<sup>期必</sup>범<sup>期必</sup>대<sup>期必</sup>부<sup>期必</sup>의<sup>期必</sup>독<sup>期必</sup>선<sup>期必</sup>  
 함<sup>期必</sup>을<sup>期必</sup>싱<sup>期必</sup>각<sup>期必</sup>하<sup>期必</sup>는<sup>期必</sup>노<sup>期必</sup>연<sup>期必</sup>왕<sup>期必</sup>이<sup>期必</sup>돈<sup>期必</sup>슈<sup>期必</sup>왕<sup>期必</sup>넛<sup>期必</sup>적<sup>期必</sup>의<sup>期必</sup>송<sup>期必</sup>태<sup>期必</sup>조<sup>期必</sup>는<sup>期必</sup>성<sup>期必</sup>주<sup>期必</sup>로<sup>期必</sup>되<sup>期必</sup>셔<sup>期必</sup>슈<sup>期必</sup>신<sup>期必</sup>등<sup>期必</sup>오<sup>期必</sup>인<sup>期必</sup>을<sup>期必</sup>원<sup>期必</sup>하<sup>期必</sup>야<sup>期必</sup>벼<sup>期必</sup>  
 슬<sup>期必</sup>을<sup>期必</sup>비<sup>期必</sup>리<sup>期必</sup>고<sup>期必</sup>향<sup>期必</sup>원<sup>期必</sup>에<sup>期必</sup>도<sup>期必</sup>라<sup>期必</sup>가<sup>期必</sup>종<sup>期必</sup>시<sup>期必</sup>지<sup>期必</sup>은<sup>期必</sup>을<sup>期必</sup>보<sup>期必</sup>전<sup>期必</sup>개<sup>期必</sup>하<sup>期必</sup>얏<sup>期必</sup>스<sup>期必</sup>오니<sup>期必</sup>이<sup>期必</sup>일<sup>期必</sup>은<sup>期必</sup>군<sup>期必</sup>신<sup>期必</sup>의<sup>期必</sup>무<sup>期必</sup>간<sup>期必</sup>현<sup>期必</sup>제<sup>期必</sup>위<sup>期必</sup>

越王句踐 五湖、范 大夫 宋太祖 石守信

라신이 비록 부귀를 탐하고 공명을 스모하고 성만함을 모르고 위티함을 서듯 못하  
 폐해맛당히 죽연이 보샤 실로를지도 할 실지니 엇지 금일 잠물너 감을 허차아니 하  
 는니 잇가상이 허희탄왕경의향장이 어티잇는 노연왕왕동교박리박게잇스오니 디명  
 은취성동이 니이다상이 량구에 좌우를보시며왈박리는 일일정이나니 좌위왈그러  
 하니 이다던지창연왈하늘이 국가를 돕지아니 심애경의잡은 뜻이 이긋치되 확하니 짐  
 의레디지의에엇지일향고집하리오 짐이다만세가 지약속을두노니 일은 십년을기드  
 려다시부를 거시니 스양치말며기이는 벼슬을 띄고 기록봉을 스양치말며기삼은 십년  
 지너라도 쇼사는 스실에 못고대는 입쇼함을 스양치말고취성동이 불원하고경이또  
 호쇼년이 라미년스시가 절에 쇼창형과함을 겸하야 산간야복으로 일팔청녀와 일기가  
 동을 다리고 짐을 송용이와보라 짐이 맛당히 편면에 각석을 쓸어군신지의를 파탈하고  
 봉우로마자서로 십년 견면됨을 위로 할가하노라 하시고인하야 정월상원과 오월 오일  
 과중추기망과 구월 구일을 당하야 주시며왈 금일 짐이 경을 보내는 마음이 엇지 심상호  
 근신리별로 말하리오 공스를 칭각호준동랑 주석의 지홀곳이 업서거복을 알헛스니  
 길흉득실을 뒤드러질 덩하며 거울이 머릿스니 용모의 곱고 귀음을 어디가 빗치리오 스  
 정으로 말호진대오야 룡루의 경경호금련축과 박관조반의 정정호패옥소리 무비 초창  
 불락하고 우량 무료호지라 경이 능히 이 마음을 알쇼나 연왕이 돈슈례음왕신이 십륙세  
 에 폐하를 섬겨 지금 나히이 십륙세라 덩중모발이 막비던은 이오니 비록 계견우마긋치

무지호미물이라도 오히려 주인을 스랑하느니 신이 엇지 분신 왜골하야 도좌우에 길  
 되서잠시 떠남이 업고져아니 리오마는 외람호 벼슬이 지렬에 처하야 진퇴출처와 일동  
 일정이 박관의 표준이 될지니 엇지 처디와 렴우를삼가지아니 리잇고이제박 불획이하  
 와던 폐를 하적하고 운산을 향하오니 적지조모슬하를 떠남긋흔지라 세가지 하교호심  
 은 맛당히 명심 불망하려니와던 원에 후퇴함은 전허부귀를 스양하고 청한함을 차자파  
 분호일이 적고 저함이 라이제 벼슬과 록봉을 지여이가지고 산슈청복을 겸하야 누리고  
 저호준 렴우의 손상을 날으지 말고 조물의 식과함이 장춧엇더하리 잇가 복원 폐하는  
 신의관 작 록봉을 거두샤 하야 곱초야 한스의 본분을 차자우호로 성덕을 노래하고 아래  
 로과분호지앙이 업게하쇼셔상이 쇼왈연 즉우승상을 면부하노니 연왕 록봉은 스양치  
 말라 연왕이 호일 업서 슈명 퇴출하느니라 차설 연왕이 성지를 밧조와 후퇴함을 청하  
 량친을 되시고 가솔을 거느려 향원으로 도라 감애 비록 일신이 평안하야 소원을 일헛스  
 나 십년 근신의 망극호는 총을 일쇼에 떼치고 호연이 도라가니 엇지 련련호 정회와 권권  
 호 총심을 니즈리오 이에 일장표를 내려 하적하느니 표에 왈

臣昌曲 不忠無狀 恩寵 신창곡이 불충무상하와 은총을져 버리고 일신을 썩하야 이제 장춧성결을 하적하고  
田園 車輪 東 園園을 향호지라 거륵이 비록 동으로 구르나 일편 단심은 북결하에 잇스오니 엇지 구  
區所懷 戀戀 愚衷 表 구소회로 련련호 우충을 표하지아니 리잇고 복유 폐하의 총명예지와 신성문무호심

은요순의 조품이 오량무의 도량이니 즉위십년에 오허려 태평지치를 일우지 못하야  
 堯舜의 姿品이 湯武의 度量이 나 즉위 十年에 오허려 태평지치를 일우지 못하야  
 民生困瘁 臣等不忠 贊襄 不足 然故 雖然  
 민성이 곤체함은 다름이 아니라 신등이 불충하와 찬양함이 부족하면 괴라 슈연이나  
 臣 匠人 强 將帥 弱 軍士  
 신은 듯스 음애어진 장인은 비 리는 나 뒤업고 강할 장수는 약할 근시업다 하오니 이는  
 陛下 伏願陛下 天下 人材 嘆息 聖德 加勉 用人 人氣 降殺 古  
 다 폐하씨달님이라 서전에 운하되 원슈명지면 괴광량지며 원슈총최지면 괴광량지  
 臣下 不忠 陛下 聖德 加勉 用人 人氣 降殺 古  
 라 하니 복원페하는 천하에 인재업슴을 탄식지말으시고 폐하의 용인하심을 생각하  
 臣下 不忠 陛下 聖德 加勉 用人 人氣 降殺 古  
 시며 신하의 불충함을 책망치말으시고 폐하의 성덕을 가면하쇼셔 인과 강회하야 고  
 今 陛下 聖德 加勉 用人 人氣 降殺 古  
 금이다 르나 하늘이 사를 내심애 장충그 세상사름으로 쓰여 그 세상스업을 감당케하  
 全國人物 堯舜之化 漢唐諸臣 世上市業 堪當 古  
 시느니 전국인물이 비록 요순지화를 썩지 못하나 한당제신이 오허려 한당지치를  
 聖君 在上 賢臣 滿朝 昏主 當國 小人 滿朝 漢唐之治  
 일헛스니 성군이 지상하 즉 현신이 만조하 고 혼주위당국현즉쇼인 만조함은 이엇지  
 人材有無 朝廷氣色 陛下深宮 處 節次 聲聞  
 인지유무에 달님이 리오 그 쓰는 듯이 숨이라 숨하 다 초야 암혈에 지조를 닦가 때를 기  
 太平之治 爲 治國經綸  
 드리는 재귀를 기우리고 눈을 보혀 조영의 식을 숨히거늘 폐하삼궁에 처하샤 그 성문  
 宜官宮妾 細瑣 近侍諸臣 循例 節次 聲聞  
 을 뜻지 못하시고 다 만환관궁첩의 세쇄할 말삼과 근시제신의 순례하는 절초로 날을  
 太平之治 爲 治國經綸  
 보내시니 태평지치를 엿지기드려 바라리잇고 폐하를 위하야 치국경륜을 말하느재

반드시 글오디 풍속을 못치며 법령을 세우며 저물을 절용하야 검소하야 며 신민을 이홀  
 賦稅 減 刑政 奢侈 禁 包苴 儉 臣民 愛恤  
 하며 부세를 감하 며 형정을 보히며 사치를 금하야 포저를 씌을 지니 이는다 금일금무  
 當然 根本 比 一生 多病 千 百  
 라그말이 비록 당연하나 오허려 근본을 나 짐이라 비견디 일성이 다 병하야 천백가지  
 危症敗兆 議論 不一 焦燥發狂 心經 潰決 南  
 위증과 쇠날로 더함을 보고 의론이 불일하야 그 초조발광함을 본즉 심경을 녹이 자하  
 呼吸喘促 肺經 東 西 潰決 南  
 며 그 호흡천축함을 본즉 폐경을 다스리자 하야 동을 막음에서으로 폐결하 고 남을 북  
 北 庸劣 醫士 循例  
 들매 북으로 문허짐을 썩듯지 못하니 이엇지 용렬하의스의 순례할 말이 아니라 오만  
 扁鵲倉公 老成 術業 元氣 培養 諸症 順  
 일편작창공의로 성술업으로 볼진대 반드시 원기를 북들어 재증을 순히 할지라고  
 人 材 士子 國之元氣 治國經綸 議論 今 日 士習 頹墮 人材 取拾  
 인이 말하되 스즈는 국지 원기라 하엿스오나 다만 스기를 비양후인지를 엿으실거  
 人材 治國經綸 議論 今 日 士習 頹墮 人材 取拾  
 시오 인지를 엿으신 후치국경륜을 의론하리니 금일스습이 되라 하야 거의 슈습지 못  
 國家 國家 三代以來 科舉之法 周  
 할디경에 니르니 엿지 국가의 큰근심이나 나 리오 삼디이리로 과거지법을 험쵸 주나  
 三物彬興之法 漢 賢良方正之策 無非士氣 培養 人材 取用  
 라삼물彬興지법과 하나라 현량방정지책이 무비스기를 비양하야 인지를 슈용코져  
 後世 科法 解弛 貧寒 者 冊 生涯之方 一層沮傷 豪華  
 흠이라 후세에 과법이 희이 하야 선비된 재학번과거를 지낸즉 기운이 일층沮상하고  
 百倍懈怠 貧寒 者 冊 生涯之方 一層沮傷 豪華  
 두번지낸즉 무음이 비키히 하야 빈한한자는 책을 덮고 성애지방을 썩하야 호화호

讀書 捷選 落拓 鄙陋 所見  
 자는 독서함을 웃고 첩경을 엿보아 엿은 즉 자랑하고 일은 즉 락척하야 비루호소견과  
 輕薄 風俗 一分羞耻之心 小民 謀利之風  
 경박호풍속이 눈에 닮고 귀에 저저 일분슈치지심이 업서 쇼민의 모리지풍과 조곰도  
 多름이 업스니 만일 그 중산림암혈에 고도를 지히여 지조잇는 자는 문을 닷고 종적을  
 世路紅塵 山下巖穴 古道 志操 門 蹤跡  
 거두어 세로 홍진에 물들임을 념려하니 폐하 조당의 인지업슴이 엿지당연치아니리  
 臣 今日急務 科法 釐正 人材 當然  
 잇가 신은 쓰하되 금일 급위몬저 과법을 리정함이 올흘가하오니 시부 표척으로 시  
 十分公心 他日收用 實取 詩賦表策 試士  
 하야 비록 심분공심을 두어 도라 일유용함이 실로 취할배업거늘 하물며 공심이 업슴  
 爲今之計貢舉法 薦主法 行 士氣 鼓動  
 이리오 위금지계공거법과 천주법을 행하야 스기를 고동함만 못치 못할가하오니 제  
 郡 詔書 三年一次式各各郡中多士 大郡 十餘人 小郡 五六人 諸  
 군에 조서하야 삼년일차식각각군중다 스를 뽑아 대군은 십여인이 오쇼군은 오륙인  
 文章 試驗 經綸 取才 禮部 大郡 十餘人 小郡 五六人 諸  
 을 문장으로 시험하고 경륜으로 취지하야 레부에 올녀다 시비 교하야 우등을 뽑아 탐  
 前 親試 經術 詩賦 詰難 陛下親 比較 優等 中經術 榜  
 전에 친시하되 몬저 경술을 뜻고 다음 시부를 힐난하야 폐해 친히 뽑으샤 그 중 경술과  
 詩賦 特出 薦主 方伯守令 褒獎 自然 方伯守令 窮搜覓得  
 시부의 특출한 선비는 그 천거할방 비슈령을 포장하야 벼슬을 더하시고 만일 써보샤  
 薦主 追後論罪 削職 自然 方伯守令 窮搜覓得  
 그름이 잇거든 또 현주를 추후론죄하야 삭직하신즉 자연방 비슈령된 재궁슈역득  
 十室忠臣 遺珠之歎 天下 陛下親 比較 優等 中經術 榜  
 하야 십실충신의 유주지탄이 업슬뿐아니라 천하에 선비된 재더마 다 재조를 가다듬

聲聞 自期 人材 作成  
 어성문이 나 타남을 자기 할지니 만일이 낫흔즉 비록 업논 인지를 작성함은 쉽지 못하  
 才操 臣 朝廷 田園  
 오나 또 혼잇는 재조를 브리지아닐가하느이다 신이 이제 조당을 떠나 전원에 도라가  
 一身 閒暇 耿結 一念 根本 伏願陛下  
 오나 비록 일신이 한가하오나 오히려 결결한 일념이 스스로 풀나지 못하와 네져서 왕  
 人材 重 今曰國家 治化 根本 伏願陛下  
 이 인지를 중히 녀어는 뜻으로 금일 국가의 차화를 돕는 근본을 말하오니 복원 폐하는  
 人材 優劣 卿 公平 藻鑑 能  
 김히 솟히 쇼셔

汀池 蘭 蕙 萎 凋 憂 憂 亦 憂 卿  
 汀池 란 필에 좌우드려 알연왕의 충성은 고인에 구하야 도드르지라 이 군우 국하느니  
 江 湖 魏 闕 古 人 進 亦 憂 退 亦 憂 卿  
 卿의 몸이 강호로 가되 믿음은 위궐에 잇스니 고인의 진역우 퇴역우는 경을 닮은 말이  
 人 材 優 劣 卿 公 平 藻 鑑 能  
 라 경은 짐을 이려하게스 랑하나 짐은 성의 천박하야 경을 머물게 못하니 엿지 못그럽  
 人 材 優 劣 卿 公 平 藻 鑑 能  
 지아니하리오 인지의 우렬을 경의 공평한 조감이 아니면 능히 가리리오 경은 수히  
 人 材 優 劣 卿 公 平 藻 鑑 能  
 도라와 짐을 도으라  
 人 材 優 劣 卿 公 平 藻 鑑 能  
 연왕이 또 연출면에 하죽하니 래 휘인전하서 고하교왈 조년 후퇴함이 거신선불원이나  
 人 材 優 劣 卿 公 平 藻 鑑 能  
 경이 흐면가면 조당이 뷔인듯 할지라 황상의 권권하서는 의향이 옥석에 나타나시니 경  
 人 材 優 劣 卿 公 平 藻 鑑 能  
 의가는 믿음도 응당 련련할지니 수이 도라와 나라를 붙들지어 다이로직은 일박셔산하



니경을다시디할날이있슬지엇지괴필하리오추연량구하시거늘연왕이할루하고다  
시주왕신이아모리불충하오나몸이나감으로국은엇지니즈리잇고오직밤산복두  
로성슈무강하시기를양축하노이다인하야물너와형장을준비할시밤형일이수일을  
적흔지라던져하교왕연왕가는날에짐이동문에나가작별하리니형방은지실하라하  
시다연왕의발형시엇지흔고하회를보라

데오십이회

상동문에던져연왕을전송하고

취성동에제랑이별원을중슈하다

上東門天子餞燕王  
聚星洞諸娘修別院

각설던저동교십리에연왕을전송하실시공경빅관이조영을기우려거매셔문에매엿  
더라던져연왕의손을잡으샤왕지척던페에일일상디하나쇼반을파할후오허려창연  
하거늘이제창망운산에요원흔회포을장춧엇지하리오연왕이감위종회하야복디주  
왕신이십년던페에레법이절엄하와지척던안을괴역지못하옵고향원에도라잔후야  
야혼몽이비록청쇄쇼반을싸라궁중하한에갓가이되시나던일용광이장춧의회하을  
지라이제잠간던안을우러러뵈옵고고져하노이다던저또흔초창할루하사평신괴  
죄함을명하시고진왕을부시며단왕연왕의청춘옥피엇지휴퇴하노저상이라하리오  
맛당히디각에조셔를초하야풍치를빛냄이을케늘무단이룩슈청산의문어답초함을  
싱각하니엇지차셔지아나리오하시고인하야란성후를차즈시나란성이즉시나아가

부복흔대던저옥비에술을부어연왕을주시며왕경은량친을봉양하고청복을누린후  
썰너도라와짐을도으라또흔잔을란성을주시며왕량은이술을바다연왕과빅년히로  
하고다즈다복하야또흔짐을넋지말라연왕과란성이부복음필에날이느짐에던져환  
궁하실시좌우를보샤왕형지유신이라황금만일로형리를보조하라하신후법가에오  
르샤저삼도라보시며초창불이하시더라연왕이빅관을츠레로작별할시황윤량각되  
단왕현세청춘지년에급류용퇴하니로부의빅슈더회함이엇지붓그럽지아나리오연  
왕이윤각로를향하야왕악장은춘취독로치아나시니성주를도아창성을구제하쇼셔  
창곡은쳐디달나잠간성만함을저허하야왕원에물너가던은을저버리니엇지부러울  
배리오다시황각로들디하야왕악장은임의고인의치스지년이지넷스니빳비휴퇴함  
을싱각하쇼셔황각로쇼왕로부노조모지인이라성시번화를멧허누리리오적막향산  
이본비소원이나다만만년쇼교를일조에원별하니로회자못초창하도다연왕이미쇼  
하고다시진왕과작별할시집슈량구에량정의의하야연왕이쇼왕화형의불속할풍  
류는창곡의아는바라능히진루를파탈하교량신가절에고인을차즐쇼나진왕이흔연  
왕내평성의도화하노는바는산슈봉위라임의양형이명구승디를점득함을드렸스니엇  
지흔번채적을들어아미산경개를구경하교소조침을심방치아나하리오연왕이다시  
소상서황상서와동마량장을면면작별할시대장군회던풍이손즈를다리고나르러일  
변할루하며일변우어왕쇼장은로의라상공을다시퇴음을밋지못하오나상공의금일

형식은천추미시될지니련풍이초창호중즐거움을이기지못하느이다하고홍원슈를  
 차차하직왕원쉬빅운동중의미진호청복을이제취성동에다시누리시니죽히치하호  
 마나쇼장의견마지치일박셔산이라이자리에양관일곡이높은회포를축동하느이다  
 하고빅슈에루쉬듯거늘란성이위로왕넷적의주나라강대공은팔십년어뷔되고팔십  
 년장쉬되였스니장군은십여년부귀를더누려달팔십을치운후취성동전의일구천석  
 을장점하고청약립독사의로다시팔십년을향슈하야풍진동고하든정회로산슈동락  
 흠을보라느이다련풍이대쇼샤례하더라츠시법개임의멀니가신저라빅관이연왕을  
 충충고별하고도라가니연왕이형장을지축하야등정고저하더니홀연십여승취괴성  
 중으로나오니이논이에가궁인이대후의명을밧아오륙기궁녀와어찬을밧들어래메  
 를작별하고그뒤에삼귀비란성을전송코저흠씩음이래대메와란성이형장을멈추고  
 성은을사례하며별회를슈작하더니또성중으로일쌍치괴물식이선명하고추쥬이길  
 을덥히십여기군졸이형인을벽제하더니르니이논관동후쇼실옥랑과관셔후총회청  
 랑이라청옥랑이치교에느리며루쉬영하야란성과속인의손을각각잡고울어왕  
 랑지쇼청련옥을보리시고가라하시느니잇가첩등이부중으로갓습더니임의등정하  
 신고로장츠취성동셔지가고저하야왔느이다란성이역시함루하며척왕너의이제쳐  
 디전일과달나녀필쥬뷔라엇지진퇴를즈전하리오호호번고별함이죽하니속히가라하  
 고인하야가궁인을보며쇼왕세간에밧지아닐바는정근이라첩등이더의로더브러코

치자라노쥬지의와형데지정을겸하야고단호신세를상의하더니천리타향에첩도부  
 귀문중에영회죽하고더도이제공후쇼실이되야청포반석의빅년지락이소원을일헛  
 스니일시리별에무슴그다지권련할배잇스리오마는첩등이향원으로감을듯고수일  
 전붓히더코치올며쓰라가라하나녀즈유흥이귀천이업느니녀필쥬뷔라엇지고정을  
 위하야일흠업논길을하리오달니고경계하야보냈더니다시에셔지조차왔스나첩이  
 역시정약흔사름이라셋치고가라하애즈연심회도치못하느이다청옥랑을다시달  
 니여왕취성동이멀지아니하느니녀의초창하다말고일난춘화하고뜻이귀거든들이작  
 반하야장군씩고하와보라언필에형장을슈습하야등정하니털귀비란성의손을잡  
 고왕첩이또호한가할때를드흔번귀장에나아가산슈경개를구경하고고인을찾고저  
 하노라란성이쇼왕허언을못할지니봉우유신을저버리지못하리이다하더라츠시연  
 왕이일형을지축하야말형흠애청옥랑이형진을바라보며취슈왕에루쉬져졌거  
 늘가궁인이위로하야다리고입성하나라차설연왕이청춘지년에명리홍진을하직하  
 고청산빅운을향하야호연이도라감애거기치중이심리에락역하니로변에구경하느  
 사름이막불칭찬왕현저라연왕이여련즈를도와태평을일우고던원에도라가공명을  
 스양하니한지소광과당지오교로당치못하리라수십리를나옴애성중부외제영군  
 셔우쥬를가지고공악을알외며다도와전송홀셔슈쇼빅이거전에졌거리며분분호  
 칭송이우되코거늘연왕이수리를머르르고요호말로위로하더니상이환궁하신후황

聚星洞  
紫蓋峰  
錦江水  
匡廬

龜蓮堂  
儲南軒  
營止軒  
春輝樓  
恩休亭

紫雲樓  
絳霞樓  
太乙亭  
泛鶴亭  
笙鶴樓  
御風閣  
玩月亭  
觀豐閣  
沉水亭  
漱石亭  
衆妙堂  
羽化庵

금만일을연왕에게또스급하시코오천일을란성을주시며왕형조유신지의를베푸는  
니향원에도라가주식지조를도으라연왕과란성이북향스비하고불승황감하더라차  
설황성동남으로흔장화가잇스니명은취성동이라북으로조개봉을의지하고남으로  
금강슈를림하니유회수십여리라산천의가려함과경개의절승함이광려와곳치닐것  
는곳이라경영흔지오래다가봉하에터를닥고일좌매터를지을서검소정처야장려  
함을승상치아니하니안으로귀련당은천세령귀유어련업을취함이니래때쳐하고좌  
편으로엽남현은동아부조야엽피남묘를취함이니유부인이쳐하고우편으로영지  
현은벽실영지하니부조영지를취함이니황부인이쳐하고박그로출회루는출초보회  
를취하야래쳐하고넙흐로는후당은은을송죽함이니연왕이쳐하고전후동서에  
형각이돌넷서며문당장육이일등을덥혔더라이때연왕일형이취성동에니르니동중  
벽성이가호호이로쇼업시동구에나와마질석깃거아니하는재업는지라연왕이데  
터를슈소하고각각처소를등흔후삼랑드러왕별원이수십여체라조운루강하루는조  
개봉하에잇고태을등범사당은금강상에잇고성하루어풍각과왕월당판공각과침슈  
영소석당과중묘당우화암이다각각경개절승하고루각이정처하니제랑은성미더로  
취하야거쳐하라삼랑이응락하니라수일후연왕이양친을되시고랑부인삼랑을거는  
려수십여처별원을나타히구경할시조개봉이돌넷스니슈석의절승함과원림의유슈  
함과계산의요도함과원효의동창함이무비명구승경이라종일쇼요하고황혼월석을

씩여도라을쉬래예즐거음을이기지못하야왕로위심년흥전에물드린흥금을오늘북  
히씨셔도다하더라익일연왕이삼랑드러문왕랑등이작일별원을보앗스니심중에당  
함이잇슬지라각각말하라란성이쇼왕향거지락이산슈에잇스니범사당은너모압강  
하야상부어옹의거할바오우화암은또흔유벽하야승니도스의쳐할곳이라비산림류  
하고불고불속함은조운위데일이니첩는조운루를취하는이다련속인왕요산요슈는  
성인의할바오문어답초는은조의일이라첩은양잠처봉하기와양주최식을도화하  
니관공각을주소연왕이선랑을보며왕랑은엇지말이업는노선랑이쇼왕첩의취하  
는바는랑랑과다른지라열요함을하직하고한적함을취하야중묘대에잇고저하는이  
다연왕이웃고허락왕제랑의쳐소경개는다아름다오나가서협축할지라다각각성미  
더로고치라하고스송하신황금으로삼랑을분급하니란성이고왕첩이황성잇슬디는  
록봉을스양치못하얏스나이제산중에드러와무엇에쓰리잇고종금이후로란성부일  
봉과랑목음삼만호와스송하신황금오천일을다상공씩박치오니상공이주장하쇼서  
연왕이쇼왕내바야흐로벼슬을버리고연원에도라음은한가함을구함이라이제랑의  
치속니셔되야전곡을마음알나하는노란성왕첩이상공을조천지멧히에괴포한란을  
아른테아니심은스스잇음을위함이나오히려서어함이만스오나이제북히비록단스  
표음과폐의온포라도제랑과곳쳐하야류념하심을기드릴가하는이다연왕이웃고허  
락하나라삼랑이각각처소로갈서란성은손삼랑과장성을다리고창두시비십여인을

仁星

거느려주운루로가니선사하야란성이장성을나아임의수세되엿더라선랑은조연과  
 창두등을거느려중모당으로가고련랑은또흔인성을나아안고비복을거느리고관공  
 각으로가니라차셜삼랑이각각도라가데턱을곳철석불과수월에각각셜연락성하니  
 연왕이랑친을되시키고량부인량랑을거느려주운루에니르니츠시는중춘이라세류와  
 명화는곳곳이그림고청계와괴석은처처의선경이라수기창두는산경을쓸어길을  
 인도하니래예경개를솟힘에남으로무수흔원산이을을창창하야운루를씨엿고압호  
 로일디장강이흘니비단과거을을펼스니취성동수빅호는안전에력력하고조개봉천  
 만봉은석상에버렸는지라대애쇼왕이는동중데일지과라란성이몬져덤득하니이도  
 흔복더로다원문을드러수보를hing함애란성이담장시복으로장성과시비를거느려나  
 와마즐시작약흔티도와표일흔기상이번화담당하야춘풍빅화와향기를다도니황부  
 인이윤부인드려왈란성은범인이아니로다산중에드러온후로용모조식이더욱점어  
 가난도다란성이전도하야조운루에니르니슈호문창이극히정치고분벽혼란은또  
 흔찬란하며금장주렴은쳐쳐에거렸스니오히려샤치흔디갓갑고전후좌우로총루를  
 세웠스니동은중향각이라압히석티를모아도리목단과명화가초를총총이심었스니  
 록엽홍해단청을장덤흔중빅덤이분분왕리하니이춘경을보는곳이오셔루일흔은  
 금슈정이니황국단풍은좌우에버러잇고진금괴석이계하에그득흔중수기스슴은석  
 티아래비회하고일쌍호응은가조우에길드렸스니이춘경을보는곳이오남루일흔

衆香閣

錦繡亭

迎風閣

白玉樓

羅臺仙子  
洛浦神女

은영풍각이니방초록음이첨아를들넋는디석벽을인연하야류쉬적은폭포를일췌고  
 그압히련못을팠스니뛰노는고기와쌍쌍흔원앙이물결을씨라회롱하니이노하경을  
 구경하는곳이오북루일흔은빅옥뤼니청송록죽은셜기셜기섯겨졌고빅한호학이무  
 리무리왕리하고만학천봉이장두에소사잇고옥미화빅여분을계하에노화스니이노  
 동경을보는곳이라대애두루구경하고조운루에올나오니잔치를설하고스죽이딜  
 당하며비반이랑자하야상해취포하며동중부로의일춘남네구름고치모혀죽육이림  
 리흠애합포동락하고슈무죽도하더라익일연왕이다시량친을되시키고량부인제랑과  
 중모당에니르니봉회로전하고산명슈려흔디쇄락흔송풍은얼골에셜치고잔원흔슈  
 성은홍금이청랑하야임의진루를니즐니라흔연랑기청의림잔으로나와길을인도하  
 니쇼쇄흔죽비는청풍에반기흔디선숙인이정정흔티도와유아흔괴상이죽히보는자  
 로물욕이살아지고신은이표탕흔지라운부인이황부인파제랑드려왈요디선조와락  
 포신녀를진제에보지못할가하얏더니금일에보는도다선랑이마져중모당에죄덩후  
 조연이차를드리니청렬흔향취심흥이상활하야임의연화지기를니즐듯하고좌우를  
 들니보니분벽사창에정신이청정하고석덩약로에향연이살아진디척상머리에일장  
 금을빛기듯코빅옥필릉에파리채를쥘자스며북창을열고봄애수총석디에석란잔을  
 드리괴화요초는춘풍에만말하고일쌍빅학이죽림에잠드렸스니그옥흔경개와한져  
 흔기미죽히보는자로물욕이업슬니라흔연일진청풍에풍경소리들니거늘래예문왕

이 소리에 뒤셔 나느뇨 선속인왕원종에 수간별당이 잇는이다 압서인도 홀시림잔에 석  
 경이 빚겼는디 수간모옥이 표묘쇼쇄하며 적막홀첨아에 비운이며 머릿고은은 혼단장  
 에 청산이 돌녜스니 돈연이 연화괴상이 업더라 문을 열고보니 단셔 일권이 칙상머리에  
 노여잇고 비옥여의는 벽상에 걸녜스니 진짓도 관선당이 오인잔거 체아니라 아이오릭  
 반총탕과 산효야 차로락성연을 고하더니 슈유에 일락셔 산고 월출동령흙애 송풍이  
 입실고 산괴만 좌하야 신청골링흔지라 관성이 상두의 거문고를 다리혀 일곡을 들애  
 선속인이 옥력을 불어 화답하니 금성은 령령고 덕성은 료료하야 청풍이니 러나며 명  
 월이 교결하니 원중쌍학이 일시에 소리하고 편천이느라 와게하에 춤추거늘래애 미쇼  
 하며 표연이 우화홀뜻이 잇는지라 연왕과 제랑을 불너 왈진시 황한무대는 헛도이 경영  
 하야 평디 신선을 지척에 두고 선문안귀를 회상에 구하얏스니 만일 오늘 밤이 곳에 이경  
 을 보던들 신선이 멀지아니 흙을 세드를 번하얏다 아이오야 심흔후 월석을 띄여 도라  
 갈시 선량이 동구에 나와 고회하니 래애 흥이 미진하야 죽장을 집고 석경으로느러가  
 더니 수십보를 행하야 홀연 공중에 옥덕소리 다시 들니 거늘래애 왈이 소리에 뒤셔 나느  
 뇨란성이 디 왈 선량이 월하에 도라가며 옥력을 부느이다 래애 거름을 멈추고 반향을 듯  
 다 가 왈이 무슴곡요이 뇨란성 왈이 곡도 일흥은 조원곡아니셔 왕되요 지연을 파하고 옥  
 황씩 조회하라가며 지은곡되니이다 래애 단왈 선량은 진짓 신선중사름이라하더라 의  
 일또 관풍각에 니르니 화목은 성림하고 괴류는 의의하야 골목을 일웠는디 청송으로울

孟母 王夫人

秦羅敷

을하 고록죽으로 바즈하야 곳곳던과가 가용성이 향리즈미를 비로소 알지라 수기차  
 환은로 변에 생을 싸고 량삼가동은 안상에나 무를하야 오니 산가 촌덕이 경양가를 화답  
 하야 래평성디에 가 급인 죽흔괴상이라 식문을 차자가니 련속인이 지분을 담히하코의  
 상을 놓히거어 인성을 압세우고 문외에기드리니 인성이야야를 부르고내 닷거늘래애  
 미쇼하 고손을 잇그러 당에 오름애 련속인이 또 혼랑부인과 제탕을 마져 중당에 분좌하  
 니 모침에로 련을 놓히거고 속란애 죽창을 반키하야 쇼쇄흔경개와 용용흔싱애를 집을  
 보아 알지라 밍모의 비들은 부창에 피여 늦코란지의 도척은 단경을니 웃하니 녀공을 힘  
 씬이 오불시지 슈는왕부인을 효축하 고슈스시의느스 간시를 본밧으니 군즈를 섬김이  
 라 지어남녀노복을 신축하 고덩구건 줄은 비스를 친집하니 진짓 농부가 풍이 오부녀본  
 식이라 윤부인이 키 용칭 찬흙을 불이하거늘 연왕이 쇼왈내 환향하야 비석여의하나 다  
 만일 키 총희를 일코 촌부 촌녀를 뒤하니 엇지 앓갑지아나 리오련랑이 쇼왈 상공이 벼슬  
 을 버리시고 후퇴 환산하시니 변시 촌옹야되라 첩이 엇지 촌부 촌네 됨을 혼하리잇고 일  
 췌대쇼하니 래애 듯고 격절 칭찬왈련랑은 언언스스에 절당흔녀지로다 란성이 쇼왈내  
 드름애 근일련랑이 진라 부를 효축하야 잠상을 일삼는다하니 구경코져하노라 련랑이  
 웃고 량부인 과 량랑을 인도하야 뒤호로 드러가니 십잔잠실을 짓고 총총이가즈를 미야  
 누에를 올녜스니 일변으로 생을 섹리며 일변으로 곳치를 싸는 빗갓치 널어 거늘황부인  
 이 낮낮히 집어 보며 단왈 나느니 저되야 다만 남기만하 고이 제야근본을아니 엇지 붓그

孟施光

럽지아니리오호더니대때또니르러보고탄왈내전일옥련봉아래광주리를볼고성을  
 홀터수두곳치와수척무명을고성으로알앗더니이제련랑이부귀문중에잔난호성의  
 를닛지아니호니엇지괴득지아니리오연왕이쇼왈그는괴득호나련랑이표리다른지  
 라의검니치호니모친은후원별당을보쇼셔호고인도호야일처에니르니분별사창에  
 주렴을느리오고화동요란에슈호를반기호디방중을쇄혀보니비단자리에부용장을  
 것엇고빈옥상두에슈협이노엇거늘제랑이열고보니수폭릉라에쌍봉을슈노아정제  
 호지정과공교호슈단이죽히탈조화호야사름의안목을놀내니막불칭찬호고다도와  
 구경호니련랑이쇼왈첩은본디추솔호너지라국쓰리고밥짓기와김미고바느질호기  
 를평성락으로아나상공이미양치심이게서뫼광의절구들물위워호시고동시의효빈  
 함을위호시기별원을지어상공이오신죽숨노얼골을지분으로엄척호고호의잡든손  
 으로슈첩을희롱호나육교반졸호고화호불성이라량랑은홍보지말으쇼셔아이오시  
 비와오찬을고호니함씩관풍각에니르러련랑이천히주하에느려가핑익을보습히고  
 함담을맛보아비반을나오니셔스의황량반과동릉의청과처로산야지미를검호얏고  
 을밋히박을싸고장상의양을잡아빈풍시를노래호니창전의덜괴인술을포준에그득  
 붓고전계의낙근고기옥반에올났거늘래야부인드러왈로워던가음식을맛본지오랜  
 지라금일디함애엇지성신치아니리오이날연왕이린리를청호야왈민지실덕은잔후  
 이건이라와준탁료와소스치깡을혐의치말라어부야옹과초동목쉬덩하에그득호야

西舍 東陵

막불취포호고춤며노래호야반일을들네니래야미쇼왈금일은진짓관풍각락성연  
 이라호더라다시윤황량부인을불너왈로워삼랑을힘넘어수일쇼견을잡호엿스나량  
 현부는엇지락성연을아니호리오명일귀련당으로삼랑을모화놀게호고데이일은염  
 남헌에모히고데삼일은영지헌으로모히고데스일데오일은춘취루은휴딩으로외외  
 을모화놀게호라량부인이응락호고일모후도라을서련랑이문밖게나와지송호니래  
 때웃고련랑드러왈동각에일기로패잇서심심무스함애랑을조차방적이나돕고쇼견  
 코져호니랑의뜻이엇더호뇨련랑이밋쳐답지못호야래야쇼왈그로패그장디접호기  
 어러올지라붓치지말라련랑이알아듯고종용이래때씩고왈오륙일후농부들모화박  
 면을김미고져호니구경호실가호는이다래때대회허락호더라익일삼랑이귀련당  
 에니르러잔취호시동중로파를일일이청호니당상당하에황발티비구름되듯호야후  
 손즈를잇글며혹중손을업어던진이란만호고풍속이습박호야복력을칭송호며부귀  
 를흠모호는소리분분호니선련랑이낫낫히관디호야주육음식을천히난호며공손  
 호스식과화락호말슴이일좌를경동호니모든로패불승감겨호야손을들어축슈호야  
 왈원컨대로신등의나홀가져부인씩드러천벽제를향부호쇼셔호더라명일염남헌과  
 영지헌에다시동중부녀를모화량일을잔치호고우명일춘취루와은휴딩에동중부녀  
 와외외를청호시래야갈건야복으로주인이되고연왕은오사홍포로종일시립호야유  
 화호말슴과인후호안식을보는재유연감동호야호데지심이조연이성갈지라막불슈

葛天氏 無懷氏

연공경하며위의절절하더라차설연왕이가스를정돈하고일신이한가흠애우흐로량  
 천을피셔롱추무반흠을호축하고아래로삼탕을차자산슈풍월로쇼견하니진짓산중  
 지상이오물의한인이라일일은제위몽몽하고남풍이훈해하니츠시는스월초순이라  
 연왕이귀련당에니르니침문이닷쳐잇고시비고왈로부인이관풍각에가시니이다연  
 왕이경왈비오논디엇지가시노시비왈련랑이우구를가지고와외셔가시니이다연  
 아웃고좌우로사립과삽을가져오라하야사립을쓰며삽을집고관풍각에갈셔청산은  
 아아하고록슈는양양흔디록음은란만하야비기운을써여잇고포곡은넉히울어시절  
 을지축하며풍편에노래소리철월시를화답하야도쳐에농부들은데력을칭송하야무  
 리무리김미니갈련씨적벽성인지무회씨적벽성인지물의한정을금일이야알니로다  
 연왕이좌우고면하며셔셔이형하더니홀연흔곳을바라보니은은흔록음중에청약립  
 록사의로여러사람이홀립혹좌하얏거늘즈세보니제랑이래메를피셔모든시비와사  
 립과사의를장속하고밭가에섯는지라연왕의음을보고련숙인이랑연이웃고마져왈  
 후스공명이일장춘몽이라금포옥디로디루원을향하심과청약립록사의로관풍각을  
 차즈심이득실을교계하고한망물의론흔죽엇다하시니잇고연왕이대쇼하고모친씨  
 고왈금일쇼견이도흐나엇지쇼즈를모르게하시니잇가대메쇼왈농가로인이한가차  
 못하야금일이후로종적이이곳홀지니허물치말라연왕이웃고좌우를봄에삼랑이담  
 장농복으로각각적은삽홀집고록음방초에한가이섯스니월래화용이더욱아릿다와

龐德公 襄陽

귀화이초와춘광을다도거늘연왕왈네적의방덕공이양양짜에숨어덕공은밭홀갈고  
 안히는덤심먹여천추의미셔되니이제내비록방공의덕이업스나제랑의풍치는죽히  
 고인에게양두치아니려니와다만두려하는바는밭가는재장기를일코김되는재호의  
 를일홀가하노라란성이웃고디왈초로인성이쾌락을누리나빅년광음이춘풍곳치덧  
 업거늘엇지곳하야산중쳐스의안히되야해여진퇴치마와가시나무빈혀로일싱고초  
 흠을원하리오모다대쇼하고농부를동독하야복을치고기를들어농뉘세째를지으니  
 삽홀에여우리를일우고호의를들너바람이나농부가로화답하니기가에왈

山有花兮 산에꽃이잇습이여  
 野有靑草 들에풀은풀이잇도다  
 時和年豊兮 때고로고희풍등흠이여  
 民安樂 빅성이안락하도다  
 山有花兮 산에꽃이잇습이여  
 春日遲 봄날이더디도다  
 以食爲天兮 밥으로써하늘을삼음이여  
 田園樂 던원에즐김이로다  
 小人勞力兮 쇼인은힘을슈고흠이여  
 君子勞心 군자는마음을슈고하는도다

勞力加餐兮 힘을슈고하야 밥을더먹음이여  
時不可失 때를가히일치못하리로다

연왕이 농가 들듯고 선랑드려 왈 랑의 지음음을 아노니 더 농부의 노래 엿더하노 선랑이  
웃고 더 왈 첩이 음률의 조박은 아오나 엿지 관풍찰속하는 총명이 잇스리 오연이나 망녕  
된 말슴으로 상공의 취적하심을 돕스오리이다 주시 삼백편에 농부의 노래 만스오니 위  
풍은 인식하고 제풍은 원조하며 당풍은 질박하고 빈풍은 근검하며 이남의 총후함과 정  
위의 방탕함이 다 각각 다르오니 풍속을 속이지 못할지라 한 위이리로 치시하는 법이 업  
고 저조쇼인이 스부를 숭상하고 희쇼노매를 시를로의 논하니 공교함을 다도고 문장을  
조랑하야 이향 풍속을 알길 이 업스오나 농부의 노래 오히려 고풍이 잇서 처란을 볼지라  
음도로의 론한 죽이 원초창하고 틀러로 말한 죽세 쇠단 죽하며 성격으로 궁구한 죽다 화  
쇼실하야 질박함이 부족하고 가곡으로 평론한 죽육언미로 하야 총곡이 적스오니 일로  
보던 더 풍속이 문명은 극진하나 총후는 미흡하고 절의를 숭상하나 기강이 미약하야 서  
주지 말과 조흔 죽엽의 풍기 잇는 가하노이다 연왕이 덤두 칭선하더라이 오 관풍각시  
비오엽을 가져느니 하니 황계 박주와 산호야 처를 암상에 늦코흐르는 물에 그릇을 씻고 씻  
가지를 색거져 더 신하야 농담야화로 반일을 놀다가 관풍각으로 도라갈시 홀연 엽남  
헌시 비망망이와 고왈 윤부인이 홀연 고통하사 증세 급하다하니 그 무슴곡절인고 하회  
를보라

周、魏、齊、唐、  
鄭、衛、南、漢、

西周

데오십삼회

엽남헌에 부인이 구슬을 희롱하고

완월당에 제랑이 비를 써우다

臨南軒夫人弄璋

玩月亭諸娘汎舟

각설엽남헌시비윤부인의 병세 급함을 고히대대 때 경하야 제랑을 다리고 황망이도  
라을식란성이미쇼왈부인은 녀려치말으쇼셔 윤부인이 잉터십삭이라히만하실기미  
인가하노이다 때에 왈 근일 윤현부의 용외수척하고 몸이 부대함을 슈상이 보앗스나 립  
삭함은 망연이 몰나더니 랑등이 임의 알진대 엿지 말하지아니하노란성이 쇼왈부인이  
슈습하사 일분과 식을 루설치아니시고 첩도 안지수월이라부인이 비밀이 조속하시는  
고로 감히고치 못하노이다 하더라모다 엽남헌에 느니 설패마조내다라란성의 손을  
잡고 루쉬 줄줄이 흐르며 왈 우리 부인이 띠이 후에 무병하시더니 금일 반드서 괴질을  
엇으심이라 찬물의 돌조치일당호성품으로와 불안척하야 자리를 덩치 못하시며 손뭇  
이 어름조흐니 장춧엿지면 또 호리오란성 왈 파과는 소동치말라하고 방에 드러가 봄애  
윤부인이 비기에 엿더여운 빈이 산란하고 주한이 만안호중란성의 드러음을 보고 함루  
하며 그 만히 소리 왈 흥랑아 나를 구하라하거늘 랑성이 쇼왈부인은 안심하쇼셔이느너  
조마다 잇는 병이니 잠잠은 죽은 권련청하리이다 하고 친이의 티를 글으며 금을 펼  
쳐 산구를 지휘하더니 아이오호소리고 고평하야 어이를 불은듯 창희 신통이 물밭게



景星

天機星

소사난듯일기귀공즈를엇으니상해서로치하하대야대페깃거흠을엇지다귀록하  
 리오설패바야흐로쇼왈부인은희산도별달니하시도다토신은열두번싱산에출밧듯  
 하엿스오나만일부인긋치신고하실진대엇지동방화축에겁뵈어나지아니리오방중  
 이박장대쇼하더라삼일이됨에대야대페신으를봄에부풍모습으로청슈준일하야귀  
 즈봉취오상린셔봉이라대야왈나의취성동은후처음보는경시라신으의명을경성이  
 라하다차설츠시연왕이케를의지하야잠간조으더니엇던미남지문을열고드러와음  
 왈나는련상던괴성이라옥황씨득죄하고인간에적강흠애그티와전싱숙연이잇서의  
 락고져왔노라설파에일도금광이되야품속에안치거늘놀나쳐니삼이라심중에의아  
 하더니중묘당시비고왈랑지작야뵈히신괴불평하야동제금하니이다연왕이그산덤  
 인줄알고즉시중묘당에니르니란성과연랑이임의외구원하야순산흔지라란성이웃  
 고연왕씨치하왈상공이이변은총즈를나으시니이다연왕왈엇지날은총즈인고란성  
 왈첩이제간남즈를약간구경하엿스나이으히긋치고은얼골은너즈에도보지못하엿  
 스오니엇지타일상공의총이하늘아들이되지아니리잇고련랑이또하나와목에춤이  
 업시칭찬하니연왕이더욱심중에몽조를싱각왈던괴성은본디고흔선관이라삼이허  
 식아니로다하더라삼일후대야대페와량부랑을다리고중묘당에와신으를뵈셔원  
 산쌍미에셔괴어리고도화랑협에춘광이몽롱하야가는눈은재벽별이빛최는듯북은  
 입은잉퇴이슬을씨엿스니안식의봉용흠은선랑을혹초하고괴상의동탕흠은연왕과

방불이라량부인이서로보며왈월티화용이너즈에만흐나경성은남즈에듯지못하엿  
 더니츠의반드시반악을압두하야취과양주골만거흠풍치잇스리로다대야또하노세  
 보고왈내드르니하늘의던괴성이다저흔별이라하더니신으의마목이청슈하고얼골  
 이미무하야타일과인지저잇슬지라명을괴성이라하라대페선랑드려왈랑의즈식이  
 던하무쌍인가하엿더니괴성의아름다움이그어미보다나으니츠소위청출어람이로  
 다선랑왈남지되야너즈괴상이만흐니인성의엄연흠만못할가하느이다련랑이쇼왈  
 첩이비록불미하나인성이너모어미를흠은티업슴을분하야하노니연즉괴성과파밧고  
 스이다대야미쇼왈춘란추국이각각그향괴잇스니랑랑은다만타일을볼지어다말할  
 스이에영지헌시비와황부인씨고왈황성셔본부창뒤셔간을가져왔느이다황부인이  
 본부셔간을밧으니황각로니외의편지잇고큰광유리에신출실과를너어보내엿는지  
 라황부인이슈괴하거늘연왕이쇼왈부인이엇지희귀흔실과를흔자먹고저하느뇨천  
 히그릇을열고보니실과아주미속흔지라연왕이대쇼왈당시승상이천금쇼교에게신  
 근이보내시니이실과필연유명할지라악모악옹의편지를못볼배업스니잠간보스이  
 다하고황부인가진편지를달취하야보니부인이슈괴하야머리를숙이거늘연왕이편  
 지를삼랑을주어왈이편지곳하은휘흔거시업스니제랑도보라황부인이옥슈를셀  
 니내여바다금초니연왕이란성을보며왈년쇼흔부인이병업시음식이실코뜻실과를  
 싱각하니그무슴중인고란성왈이느너즈마다잇는증인가하느이다황부인이더욱슈